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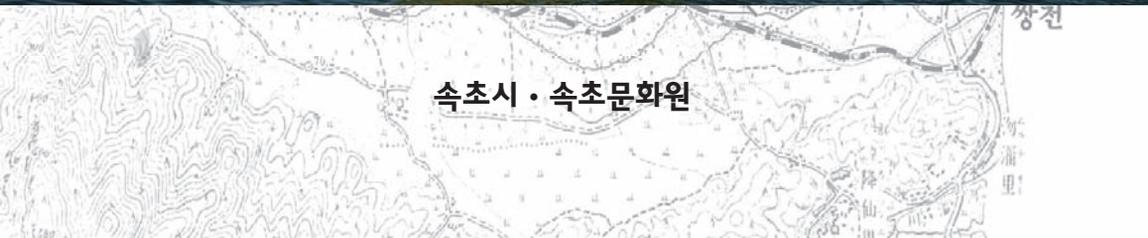


속초시 · 속초문화원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조도



속초시 · 속초문화원



市木 - 은행나무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市花 -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행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市鳥 -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단결을 의미한다.



캐릭터 - 해오미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 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 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 /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7
1.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속초	8
2. 다양한 기상변화	12
3. 속초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이 있을까	14

두 번째 이야기 / 역사에서 만나는 속초	23
1. 속초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4
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속초	27
3.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속초	29
4. 속초를 짓밟은 일제	33
5. 오늘날의 속초	39

세 번째 이야기 / 속초 지명 이야기	45
1. 지명의 내력	46
2. 지명의 유래	47
3. 마을의 지명유래	48

● - - - - -	
네 번째 이야기 / 역사의 흔적, 전통의 숨결	69
1. 속초의 문화재	70
2. 속초의 민속	93
● - - - - -	
다섯 번째 이야기 / 속초의 관광과 예술의 역사	109
1. 관광업의 역사	110
2. 속초의 시대별 예술사	113
● - - - - -	
여섯 번째 이야기 / 스토리텔링 속초	119
1. 소아팔경과 속초팔경	120
2. 이야기로 만나는 속초	129
● - - - - -	



올해는 속초시가 시로 승격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지난해 속초의 다양한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속초의 문화상징 50’을 발간하여 커다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역사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했다고 자평합니다.

올해는 그런 기획의 일환으로 속초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관광을 쉽고 재미있게 편집한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들고 다니며 속초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속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양동 선사유적지부터 시작해 문화재를 만나고 관광자원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략하게나마 예술도시 속초의 면모를 만들어 온 예술 역사를 연대기별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역사를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에 힘썼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속초 관내 학교와 일반 시민들이 이 책을 읽으며 속초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전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속초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책들을 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문화원장 박 무 응





첫 번째
이야기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1.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속초
2. 다양한 기상변화
3. 속초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이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1.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속초



속초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 동경 128°25'~37'과 북위 38°07'~13'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고성군, 남쪽으로 양양군, 서쪽으로 설악산맥을 경계로 인제군, 그리고 동쪽으로 동해와 접하는, 남한땅 동해안에서 북부권에 위치한 항구(港口) 도시이며, 천혜의 관광도시이다.

속초는 태백산맥 줄기 중 최고봉인 설악(雪嶽)의 대청봉(1,708m)이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마등령·화채봉·칠성봉 등 높이 1,000m 이상의 높은 연

봉들이 서부와 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설악산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한 산세, 울산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숲, 그리고 신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철 경관이 뛰어나다.



설악산은 내설악(內雪嶽)과 외설악(外雪嶽)으로 구분,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주능선을 경계로 동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이다. 또한 북동쪽의 화

채봉과 서쪽의 귀떼기청봉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설악, 북쪽은 북설악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속초시는 7번 일반국도에 의해 북쪽의 고성군, 남쪽의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로 연결되고, 56번 지방도에 의해 인제군, 서울과 연결되며, 설악산과는 462번 지방도에 의해 연결된다. 수도인 서울과는 248km,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는 174.6km, 휴전선과는 62km의 거리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속초의 모습

가. 산세

설악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대청봉을 제외하고는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 있다. 태백산맥은 제 3기의 용기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속초·인제·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옛 사진 속의 대청봉

설악산의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북방으로 무너미 고개, 북서쪽으로 마등령, 저항령, 다시 북쪽으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며, 그중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을 공룡능선이라 부르며, 날카로운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악의 능선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태백산맥이 계속 이어지며 북서쪽으로 귀뚜기청봉, 여기에서 대승령과 안산에 이르는 능선이 서북주능이다. 황철봉과 미시령 사이의 동쪽으로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달마봉으로 이어지고, 목우재와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낮은 능선이 뻗어있다.

나. 하천(河川)

남서쪽을 제외한 모든 사면이 급경사이며, 내설악의 남부에는 한계천이, 북부에는 북천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의 상류를 이루는데 외설악의 남부에는 양양 남대천이, 북부에는 쌍천이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이러한 설악산의 분수령 동쪽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며 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달마봉·청대산 등의 산줄기가 시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해안까지 뻗어 내린다.

속초지역에는 설악산에서 발원한 쌍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류에서 하안단구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하천 양안에 도문평야를 만들면서 시의 남쪽 경계를 이룬다. 북쪽의 청초천은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로 유입되는데, 하천 주위에 비옥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경사가 급하고 유로연장이 짧아 강수량을 저유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갈수기 때마다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단점도 있다.

다. 해안지형(海岸地形)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 구조와 지형상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 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한다.

사빈(沙濱)은 해안이나 호수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퇴적지형으로 보통 암석해안이나 절벽해안에 접해 있는 곳에서 길고 좁은 퇴적물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양퇴적이 일어나는 해안 평야의 바깥쪽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외에 특수한 것으로 연안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좁은 평행사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평행사주들

은 바다를 고립시켜 석호를 형성하는데, 속초에서는 청호동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지형이 이에 해당한다.

속초지역의 해안은 외용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된 암석과 자갈이 많은 해빈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고성군 토성면의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이다.

라. 석호(潟湖)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석호가 많다.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주나 사취 등에 의해 가로막혀 형성된 호수로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구에 발달하였으며 이런 하천의 경우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적어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속초지역에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분포하고 있다.

영랑호(永郎湖)는 장사동과 영랑동·금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면적은 1,024,000㎡, 둘레는 7.7km 정도이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사선(四仙-영랑·술랑·안상·남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무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이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영랑이 호수의 자연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조차 잊어버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청초호(靑草湖)는 청학동·교동·조양동·청호동 일대에 걸쳐있는 호수로 면적은 879,863㎡(호수 일부를 매립하여 '99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장을



영랑호 전경



60년대의 청초호

조성함에 따라 면적이 다소 줄었음), 둘레는 4.276km 정도이다. 미시령 부근에서 발원해 학사평과 소아평야를 거쳐 동쪽으로 흐르는 청초천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청초호는 천연적으로 선박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현재 속초항의 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청초호 매립지에서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 다양한 기상변화

속초는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계절풍이 불고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속초지방은 태백산맥에 속하는 설악산을 서쪽에 두고 동쪽에는 동해에 연하여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 기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호우나 가뭄, 강풍이나 대설 등 다양한 기상 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가. 강수량(降水量)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는데 강수량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의 강수량은 대단히 적게 나타난다. 속초 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2.4mm로서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여름 홍수

나. 기온(氣溫)

속초의 1년 평균 기온은 12.1℃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속초의 기온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온화한 것은 동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에 걸쳐 동해로부터 유입되는 해풍은 속초의 기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기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에는 서해안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수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 풍향(風向)

풍향은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특수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일정한 바람이 탁월하게 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절적인 영향도 크게 받아 여름에는 주로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다. 풍속 또한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내륙보다는 해안 지방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속초의 연평균 풍속은 3.1m/s이다.

속초에서 발생하는 나쁜 기상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폭풍이다. 일반적으로 폭풍은 10분간 평균풍속이 13.9m/s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속초의 연 폭풍일수는 16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겨울철에 폭풍현상이 많은 것은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며, 봄철에 폭풍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영동지방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것은 태백산맥과 동해가 가까이 있어 국지적으로 바람의 이동이 급하게 이루어지며 골짜기 등을 따라 바람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폭풍이 몰아치는 해안도로

라. 기후(氣候)

1) 서리

속초지방의 첫서리는 대체로 11월말에서 12월초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서리가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3월이 된다. 첫서리가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은 1983년 10월 24일이며 가장 늦게 나타났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었다.

2) 눈

속초 지방의 첫눈은 대체로 12월에 나타나지만 이른 경우에는 11월 초·중순에 내리기도 한다. 마지막 눈은 대부분 3월경에 나타난다. 가장 빨리 첫눈이 내린 때는 1980년 10월 25일이며 가장 늦게 첫눈이 내린 때는 1994년 12월 31일이다. 가장 빨랐던 마지막 눈은 2000년 2월 27일였고, 가장 늦었던 마지막 눈은 1992년 4월 15일이었다. 속초지방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날은 1969년 2월 21일로 123.8cm이었고, 적설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1972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50일간이었다.

3) 얼음

속초지방의 첫 얼음은 대체적으로 11월경에 나타나고 마지막 얼음은 3월경에 나타난다. 첫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9년 10월 17일였고, 첫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71년 11월 28일이었다. 마지막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59년 3월 9일였고, 마지막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84년 4월 20일이었다.

3. 속초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이 있을까?

가. 설악산의 식물

1) 설악산의 생물 지리학적 특징(特徵)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인 관계로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 차가 12~13℃가 된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털개불알꽃, 홍월굴 등을 비롯 금강봄맞이꽃 등 남한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며, 눈측백, 난쟁이붓꽃, 솔나리 이외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자라고 있다.



눈잣나무

이와 같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 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 변천에 따라 식물이 이동하는, 즉 남하 또는 북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금강봄맞이꽃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 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설악산의 식생현황(植生現況)

설악산의 식물구계는 중일식물구계, 온대아구의 한국구에 속하며,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원시림은 신갈나무, 서나무, 당단풍 등의 낙엽활엽수림과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상록침엽수림의 혼합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단순림을 구성하고 있다.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은 낙엽활엽수림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설악산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산맥에서 서해와 동해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3 : 1에 달해 외설악은 내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심하

고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빨라 많은 기암절벽과 폭포를 만들며, 표토의 깊이가 얇고 건조한 편이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치 않아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내설악은 외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표토가 깊고 수분 조건이 적당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편이다.

따라서 외설악에서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소나무림의 발달과 굴참나무군락을 볼 수 있으며 내설악은 대부분이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 때문에 고도별 수직 분포와 구성 종의 차이를 약간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112과 486속 1,300분류군(1,043종, 214변종, 34품종, 1아종, 8교잡종)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매우 넓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과거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삼림이 울창하였으나, 6·25전쟁 중에는 격전지이었기 때문에 삼림의 훼손이 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까지는 인간의 간섭이 없어 삼림의 복구 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삼림이 울창하고 식물상이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설악산 국립공원과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부터 등산 인가와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외래종이 도입되는 등 종의 분포 상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3) 설악산의 대표적인 수종(樹種)

설악산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는 신갈나무, 소나무, 당단풍, 졸참나무, 서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굴참나무가 있다.

4) 설악산에 자라는 특산식물(特産植物)

우리나라에서만 서식 또는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설악산에 자라는 모데미풀과 특산종의 설악눈주목 등 특산 변·품종 두메김의털을 포함 모두 71종류가 있다.

5) 설악산에 자라는 희귀(稀貴) 및 멸종(滅種) 위기 식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개체 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 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과 보호대상식물 중 보호대상 식물은 솔나리를 비롯해 74종류가 설악산에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歸化植物)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은 29속 33종류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 225종에 대한 설악산의 출현 종수는 1262종류로 2.61%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에 조사된 종류에서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가 자생종으로 밝혀져 제외되고 새로운 종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설악산에는 귀화종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귀화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설악산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운반 등 귀화식물의 도입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나. 속초의 해안식물(海岸植物)

1) 해안환경(海岸環境)

속초의 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는 육지에서 풍화 침식으로 생성되는 모래를 운반 공급하는 양양 남대천, 쌍천, 용춘천 등의 하천이 있어 모래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약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하며,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들이 해안 식물이다. 이들 해안식물들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하여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이 뿌리의 양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모래해안에서 파도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 바깥쪽의 불안정 지역에는 땅속줄기가 발달한 식물, 기는줄기가 발달한 식물, 뿌리가 깊은 방석형 식물 등이 잘 자라며, 암석해안의 바위틈에는 방석형 식물과 잎이 두터운 식물, 털이 있는 식물 등이 잘 자란다.

2) 해안식물(海岸植物)

속초시의 해안에 자라고 있는 해안식물 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은 왕잔디를 비롯해 밀사초 등이 있다.

다. 속초의 습원식물(濕原植物)

석호(潟湖)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관개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짙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속초시의 호수, 하천, 관개용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과 물질경이, 부엽식물에는 가래, 애기가래, 수련, 개연꽃, 부생식물에는 개구리밥, 좁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는 갈대, 줄, 부들과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부처꽃 등 이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라. 설악산의 동물(動物)

1) 포유류

과거 문헌, 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물 등), 관찰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설악산에 서식하는 포유류로 총 6목 15과 39종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6목 16과 37속 45종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설악산에 과거 서식하였거나 현재에 서식하고 있는 종은 모두 6목 16과 39속 48종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 절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과거에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설악산은 물론 남한에서는 절종되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호랑이, 사슴이다.

나) 사라져 가는 종류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과거에는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개체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목격담과 생활흔적으로 서식을 추정할 뿐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으로, 일부 종은 최근에 전혀 목격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늑대, 여우, 곰(반달기슴곰), 표범, 사향노루 등이다.

다)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 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고슴도치, 너구리, 수달, 오소리, 담비, 노루, 산양 등이다.

라) 환경 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두더지, 멧돼지, 고라니, 다람쥐, 멧토끼, 청설모, 들쥐(땃쥐, 작은땃쥐, 뿔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멧밭쥐, 갈밭쥐 등) 등이다.

마)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 야생화 된 종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기르던 것이 야생화 한 종으로 고양이와 염소가 있으며, 특히 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

청문 조사만으로 기재되었거나 잘못된 동정 등으로 기재된 종 중에서 설악산에 분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갯참서는 주민들에 목격되었다고 하나 서식이 확인

되지 않았고, 날다람쥐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하늘다람쥐를 잘못 동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조류

원병오와 구태희의 「설악산의 조류의 분포와 임상과의 관계」(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77~284)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62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2001)에서는 109종을 기록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109종에 『강원의 자연-조류편』(1988,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설악산 지역 외의 속초 지역에서 관찰된 종류를 추가하면 속초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46과 121속 227종이 된다. 그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I급이 7종, II급이 20종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23종이 있다.

3) 파충류·양서류·담수어류

가) 파충류

백남극, 박상률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파충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93~30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13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는 설악산 경계 밖 저지대에서 발견한 7종을 포함하여 모두 2목 6과 16종을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구렁이(I급) 1종이다.

나) 양서류

백남극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양서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85~29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양서류는 2목 5과 6속 10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한국미기록종 1종을 추가하여 2목 5과 6속 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담수어류

전상린의 「설악산의 계류동물- I. 담수어류」(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370~411)에 의하면 태백산맥의 일부인 설악산맥을 분수령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에서 뚜렷한 담수

어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된 담수어는 원구류를 포함하여 총 61종류이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담수어 61종에 『강원의 자연-담수어편』(1986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속초지역의 담수어를 검토하여 추가하면 원구류를 포함하여 21과 50속 65종이다. 이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II급이 8종이며, 천연기념물은 어름치 1종이다. 또한 한국고유어종은 16종이다. 종의 배열 순서는 『한국동식물도감-담수어류편』(1997 김익수, 교육부)을 따랐다.



두 번째 이야기

역사에서 만나는 속초

1. 속초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속초
3.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속초
4. 속초를 짓밟은 일제
5. 오늘날의 속초



두 번째 이야기

역사에서 만나는 속초

1. 속초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석기를 사용하고 무리 생활을 이루었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였다. 정착생활은 농경문화의 틀을 만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속초 지역에서 조사, 보고된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없다. 그러나 인근 지역인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속초 지역에도 사람이 살았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인근 양양 오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대가 앞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원산지는 백두산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흑요석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속초는 원시 시대 사람들의 이동 경로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가.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어,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청동기 유적지유물

속초는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지는 속초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이다.

조양동 일대는 낮은 구릉과 평야 지대로서 청초호와 접하고 있어 옛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조양동 지역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낮은 야산에서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숫돌조각이 지표 채집되었고 일부 탐색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어 1992년 5월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양동 구릉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2기와 집자리 7기가 드러났다. 고인돌 발굴 조사 결과 완전한 형태를 갖춘 부채꼴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부채꼴주머니도끼는 남한에서 발견된 유일한 것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유물로 평가 받을만하다.

집자리 7기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반듯한 모양에 가까우며, 대부분이 풍화된 암반층을 파고 설치되었다.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구멍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화살촉, 그물추, 돌도끼, 가락바퀴, 숫돌조각 등이다. 특히, 굽다리 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문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 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 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적 제 376호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1980년 12월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발견되었다. 간돌검은 자루가 있는 돌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며, 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스페(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 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 동예(東濊)

청동기시대 이후 지배·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가 형성되었다. 그 초기 국가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 북부에 동예(東濊)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예의 크기는 총 2만호 정도로, 문화적으로 고대 국가의 전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지리적인 여건상 선진문화(금속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이에 신석기 시대의 전통인 족외혼과 각 씨족의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는 책화라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동예는 단단대령(單單大嶺, 嶺은 嶺 같으며 오늘날의 태백산맥으로 보여진다.)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전체를 통솔하는 대군장은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의 족장들이 각기 자기 부족들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정치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여 군장국가의 단계에 머물다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동예는 고기잡이가 중시되었다. 그들은 고구려에 공납물로 해산물을 바쳤다. 그러나 다른 초기국가들과 같이 주산업은 농업이었으며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속초

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속초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다. 고대 당시 이곳은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양양의 고구려 때 이름은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그 시기는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峴)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 중 명주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속초의 영랑호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화랑도는 일상생활의 규범과 옛 전통을 배우며, 각종 제전 및 의식에 관한 훈련을 쌓고, 수렵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을 익히며,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들은 국토순례를 중시했다. 그 중 금강산과 관동 8경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었다. 속초의 영랑호를 비롯하여 통천 총석정의 사선봉, 고성 삼일포, 간성 선유담, 강릉의 경포대, 한송정 등에는 화랑들의 고사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고장은 고승들도 즐겨 찾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에 의해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가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에 창건되었다. 그 이외에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월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당시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졌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뒤에 전국은 5도 양계로 낙착되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였고, 양계는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군사행정구역으로 북계와 동계가 그것이었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 병마사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리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와 합쳐져 교주강릉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였다.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속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몽고가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고종 40년(1253) 예구(世古)에 의한 제5차 침입 때에는 강원도에도 침입하였다. 고려 승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 기록은 무려 471회가 되는데 속초 인근에도 우왕 9년(1383)에 왜구가 동산현에 침입한 기사가 있고, 우왕 6년(1380) 강릉도 상원수로 활약한 조인벽이 말년에 지금 낙산 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에 은거했으며,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 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속초

강원도는 근세조선 이후에 쓰인 이름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 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 말에 형성된 교주 강릉도의 이름을 바꾼 데서 출발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켜 감영 소재지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구역 정비와 행정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이때의 것이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강양도·강춘도·원춘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반역, 강상죄 등이 명칭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가. 조선시대의 속초

1) 행정구역(行政區域)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도호부는 도문면, 소천면을 포함하여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태종 16년(1416)에 처음으로 양양으로 불렸는데,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아관 파천(1896년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 이후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 36년(1760)에는 1,265명,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는 1,20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유학·교육(儒學·教育)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벽(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 남아있는 유물재비(兪勿齋碑)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희일(兪晦一)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이 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3) 군사와 국방(軍士와 國防)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5위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세조(世祖) 이전에는 각 도에 절도사가 주재하는 주진을 두고 변경·해안 등 요충지에 진(鎭)을 두어 방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해안 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 6년 정축에… 수군만호수어처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

속초포(東草浦)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 10명이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것이다. 아울러 이미 세종때 수군만호처가 존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

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첨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는 겪지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 4진으로 상륙한 모리 요시나리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 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4) 교통·통신(交通·通信)

교통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용치에도 덕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5) 특산물(特産物)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특산물은 전국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모시, 철, 죽간(竹簡, 글씨를 쓰던 대조각),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 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종류, 한약재), 꿀, 백화사(뱀종류), 김, 콩, 전복, 홍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송어, 해삼, 송이 등을 기록하고 있다.

나.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전개

1)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운동)

동학은 1860년경 철종 때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 의하면, 1869년에 2대 교주 최시형이 2년간 양양에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영동보다 영서에 동학이 크게 퍼졌고, 아울러 영서지역에서 동학군이 봉기하게 된다.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나, 곧 강릉읍민에게 패퇴하여 평창 등지에 주둔한다. 또 홍천에서는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5읍 도접주였던 차기석이 동학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 양양, 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발하여 동지를 모으고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립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동학군을 조직하고 각 영에 배치하여, 동학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군을 공격한다. 이때 양양에서는 도문동 출신 이석범이 민병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했다.

2) 의병항전(義兵抗戰)

한말 민족 운동의 두 흐름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이다. 의병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시해한 사건)과 단발령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되었다. 각지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치으로 9개월 정도 후에는 활동이

종식된다.

영동지역의 의병장으로는 민용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여,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곳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9군 창의소를 설치했다. 양양『향토지』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그는 의병들을 이끌고 원산까지 공격하나, 안변·선평에서 관군에게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원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의병과 관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읍에서 임천리까지 전투장이 되었고, 민가 30여 호가 불에 탔다. 독립신문(1896. 6. 20일자)에 보면 당시 군수가 의병에게 처형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4. 속초를 짓밟은 일제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고, 의병 부대는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 독립군으로 재편성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봉기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회복을 벌였다.

가. 일제시대의 속초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



1915년 속초지역 지도

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지도자는 이석범(李錫範)이었는데, 그는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으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 반동학군 활동, 의관, 면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았다는 점이 3·1운동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둔 여학교를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하던 중 유림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이석범의 지휘와 또 다른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양양에서는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민 등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흥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오전에는 도천면민이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대포리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에,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세운동은 4일 양양시장과 군청,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이래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6개면 82동리의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국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며 3일 오후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 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양지방의 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상반된 이해를 갖는 보수세력과 개화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타 지

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다. 3·1 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전개

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농민조합운동

3·1 운동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후, 양양 지역의 사회운동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23년 물치 노농동맹이 조직되었다. 물치 노농동맹은 양양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운동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양의 대표적인 사회 운동은 농민조합운동이다. 양양은 지주 경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급자족적인 영세 소농 경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지주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야학의 설립과 외지 유학생들에 의한 신문화 유입 등이 농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각 리별로 활동하던 농민조합을 1927년 12월에 군 농민조합으로 탄생시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천면 출신의 지도자 김병환은 1926년 12월경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양양 농민조합은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1931년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제는 1932년 도내의 21개 경찰서에서 무장 경관대를 차출하여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짧은 시간 안에 3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검거되었고, 이 중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김병환 등 36명으로 이들은 4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양의 농민조합운동은, 당시 신문이 단천 농민조합사건 다음 가는 대사건이라 보도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고 활동도 활발했다. 그러나 농민조합운동이 1931년 이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

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민조합에 참여한 것은 현실생활의 타개, 토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신간회(新幹會) 운동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1927년 2월에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우파의 연합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 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컸다.

설립 후 신간회는 미신타파, 조훈금지, 단연과 아편흡연추방, 매춘과 풍기문제 등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공진소년회 매욕 사건'(대포공립 보통학교의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 24명에게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인데, 결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양양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로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히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하여 왔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농민조합이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신간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가 검거되면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나 신간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성장해 온 민중운동을 규합하여 조직하고, 민족단일 전선을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라. 일제시대의 경제 상황

일제의 경제 침략 기본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토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저희들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곡만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를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광대한 국유지의 지주로 군림하게 되었는데,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와 임야의 면적은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880만 정보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 동양척식회사는 11만 정보를 소유하였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소작료는 미곡만 1년에 50만석이었고, 잡곡은 그 배로 추정하고 있다.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일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일본인 대지주를 양산시켰다. 여기에 1920년대에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시대의 속초 지역민의 생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속초를 포함한 양양 지방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의 소작관행』을 보면 농민들의 춘궁 상태에 관한 조사에서 자작농은 92%가 자작 겸 소작농은 72%가 춘궁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은 상당히 많았다. 순수소작농의 75%가 춘궁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양양지방의 조개, 갈천, 미천, 서림 등 화전민부락은 초근목피로 연명한다는 당시 신문 보도가 있는가 하면 소작농의 66%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1938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강원도편에 보면 도천면, 양양면에 거주한 외국인 수는 남 195명, 여 192명 합계 387명이었다. 이들은 상업과 개인 지주였고 일부는 농장까지도 경영하였으며 광산을 경영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서 “외국인의 상점 외에는 볼만한 것이 극히 희소”하다고 한 것을 보면, 양양군 내에 거주하는 소수 일본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1920년대의 저축액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보면 금융의 경우도 일본인 저축 액수가 조선인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천면의 경우, 1925년에서 1927년까지 조선인의 저축액은 5배 정도 증가한데 반해 일본인의 불입액은 무려 17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양면도 일본인 불입액이 조선인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업 등을 통하여 축적된 일본인의 자본이 토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일본인 지주를 양산해 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5. 오늘날의 속초

가. 해방(解放) 후의 속초

1) 공산 치하(共產治下)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혼란만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고 있을 때, 미국·소련(현 러시아)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국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2) 반공 투쟁(反共鬭爭)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현 러시아)의 지원 하에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 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체

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과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이다.

가)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속초 애국 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다가 비밀이 탄로되어, 다음날인 2월 19일 모두 체포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찔러 잠을 못 자게 하고, 자루를 대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46년 3월 15일 원산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원산교도소로 이감된 후 1946년 6월 19일 사건 기각으로 풀려났다.

나) 90인 사건

90인 사건은 해방 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그들이 살던 적산(敵産)가옥 처리에 있어서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 데서 사건이 기인되었다고 한다. 김환기, 박상희 등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하룻밤만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고 한다. 주동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박상희 송덕비

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 유격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의 작전 임무는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 중 호림 5대대가 대청봉에서 화채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을 받았다. 7월 8일 강현면 상북리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와 김정배의 집에 4일간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중, 김정배의 조카딸이 극력 공산주의자였던 남편 이종구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었다. 호림 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민군과 상북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대원들이 전사하였다.

나. 6·25 동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남침을 감행하였다.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전쟁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다. 속초의 수복(收復)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 앞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라. 북한 주민의 월남

국도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 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분단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 있다.

마. 속초시의 승격

일제시대 후기에 오면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가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동란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편입되었다. 그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속초리

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6호에 의해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외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초 지명 이야기

1. 지명의 내력
2. 지명의 유래
3. 마을의 지명유래



세 번째 이야기

속초 지명 이야기

1. 지명의 내력(來歷)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다. 그 이후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面), 리(里)제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의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웅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 대포, 외옹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로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라 개칭하고, 1942년 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고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다가 한국 전쟁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일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11월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 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90년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도문동·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명의 유래(由來)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는 4가지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이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

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끈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올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끈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올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고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뭉을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문헌상 유래〉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에 보면 “속초리는 속새울, 속새골이라고도 했는데, 속새가 많은 데서 유래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속새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 많으므로 속새를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금도 나이 많은 토박이들은 속초를 속새라고 불렀음을 기억하고 있다.

3. 마을의 지명 유래

가. 영랑동(永郎洞)

영랑동은 1966년 동(洞)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1구였으나 영랑호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이라고 하였다.

영랑동의 바닷가 마을은 ‘삼짜개’라고 하였는데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은 새쪽이라 하고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짜이라고 하여 새짜 마을의 뜻으로 삼짜개라고 불렀다.



영랑동 시내

나. 동명동(東明洞)

동명동은 1966년 동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2구였으나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

빛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동명동이라고 하였다.

속초의료원 뒷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관음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예부터 이곳에 관음보살이 나타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1952년 ‘관음’이라는 큰 글자를 새겨 넣었다.

보광사 옆 골짜기는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어 ‘불당골’이라 불렀다.

‘영금정(靈琴亭)’은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잇닿아 있고, 한쪽면이 육지와 닿아 있는 석산으로 일제 말기 속초항을 개발할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며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나 영금정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영금정은 누대나 정자가 있어 영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몰래 목욕도 하고 신비한 노래를 부르며 즐기던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라고도 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비선대로 표기되어 있다.

영금정 앞에 있는 바위는 멀치떼를 쫓아 들어온 오리가 많이 앉는다고 해서 ‘오리바



과거의 동명항



오늘날의 동명항



60년대의 동명동과 영랑동 항공사진



해돋이가 장관인 영금정 정자

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명항'은 밝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고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속초에서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속초항'이라고도 한다. '동명항 방파제'는 길이가 약500m 정도 남쪽으로 뻗어있으며 방파제 끝에 등대가 있다.

동명항 방파제와 영금정 사이에는 1998년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영금정 '해돋이 정자'가 있는데 다른 정자와는 달리 바다 위에 세워진 해상 정자이다.

영금정 부근에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는 예전에 성황당이 있어 '성황봉'이라고 불렸다.

이 산에는 속초8경(八景)의 1경인 '등대전망대'가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바닷가에는 '수복탑(수복기념탑)'이 있다. 이 탑은 1954년 피난민들이 항수를 달라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피난민의 회사금과 속초읍이 부담하여 건립하였다. 탑 위에 모자상을 새기고 탑에 모자상부(母子像賦)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 그런데 지난 1983년 강풍으로 탑위의 모자상이 부서져 버렸다. 수복탑을 다시 복원해야



구 수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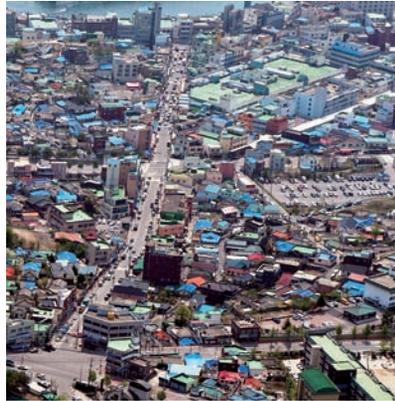
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하여 시민 성금과 시비로 복원하였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골짜기는 ‘우렁골’, 법원, 검찰청과 속초 감리교회와 동명동 성당이 있는 골짜기 마을은 ‘장골’, 또는 ‘장안골’이라 불렸으며,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의 흔적이 있었다고 기록이 전한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설 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는 ‘응고개’, 구경찰서 뒷편 마을은 ‘촌말’, 수복탑 쪽 마을은 ‘웃말’, 등대 쪽 마을은 ‘아랫말’ 그 중간에 위치한 마을은 ‘중간말’이라고 하였다.

다. 중앙동(中央洞)

중앙동은 1966년 동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3구였으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동이라고 하였다. 1998년 동 통폐합으로 행정상 중앙동은 폐합되고 금호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중앙 시장은 3구에 있다고 하여 ‘삼구 시장’으로 불렸으며 시장이 있는 골짜기는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상의 소가 있어 ‘용소골’이라고 불리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공설 운동



중앙시장 도로

장 입구에서 중앙 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은 이곳에서 짚치기 놀이(소나무 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고무라진 나무나 지게 작대기로 짚채를 만들어 상대방 문에 넣는 놀이)를 했으므로 ‘짚터’라고 불렸다.

라. 금호동(琴湖洞)

금호동은 1966년 동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4구였다.

영랑호 남서쪽에 있는 큰 바위는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녀들의 가부가 끊이지 않고, 찾아

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영랑동 남쪽 범바위 바로 옆에 ‘금장대’가 있다. 한국 전쟁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11사단장 김병휘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시멘트로 만든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던 것을 2005년도 복원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고 시민공모에 의해 ‘영랑정’이란 명칭으로 세워져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영랑호 건너편에서 바라본 범바위



영랑정 준공식

마. 청학동(靑鶴洞)

청학동은 1966년 동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6구였는데,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대형 상가의 형성으로 사라졌지만 이 곳에 있던 시장을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청학동에 ‘육구’의 상호명이 많은 것도 속초리 6구였기 때문이다. 1998년 동 통폐합 때 청학동은 폐합이 되어 행정상 교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청학동과 금호동 일대

바. 교 동(校洞)

교동은 1966년 동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 6구였는데, 둘로 나누어 한쪽을 교동이라고 하였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에는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

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초등학교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교동성당 부근은 ‘만천동(萬泉洞, 萬千洞)’이라고 불리었는데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과,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천 하류에 놓여 교동과 조양동을 연결하는 다리는 ‘짱다리’라고 불렀는데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짱다리라고 부르나 공식 명칭은 청초교이다.

사.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으로 청초호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고 한자로 써서 ‘반부평’이라고도 불렀다.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청초호를 끼고 있어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을 ‘갯배나루’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5구도선장이라고 했었다.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은 ‘조도’라고 한다. 우리말로 새섬이라고도 하는데 한때는 용초정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자는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서 있다.



해방 전 갯배나루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갯배

아.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이라고 하였다.

조양이란 동명은 소야8경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리에 아침 햇볕이 비치는 경관에서 따온 것이다.

1) 부월리(扶月里)

조양동의 중심 마을로 지금의 부월리와 청호동, 새마을이 부월리에 속했다.

순 우리말로는 '배다리'라 칭했는데, 이는 지금의 부월리와 청호동 사이에 부교(浮橋)를 놓아 건너 다녔다고 해서 생긴 마을 이름이라 한다.

'새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이고, 부월리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은 이전에 연못이 있어 '연깨'라고 하였다.

2) 온정리(溫井里)

온정리는 부월리와 논산리 사이에 있던 마을로 부월리에 속해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독립 되어 온정리가 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입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3) 논산리(論山里)

논산리는 부영아파트가 들어선 일대를 말하며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입되었다.

논산(論山)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이라고 표기한데서 유래한다. 논피를 논미로 발음하기도 한다. 논산리에서 중도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떡발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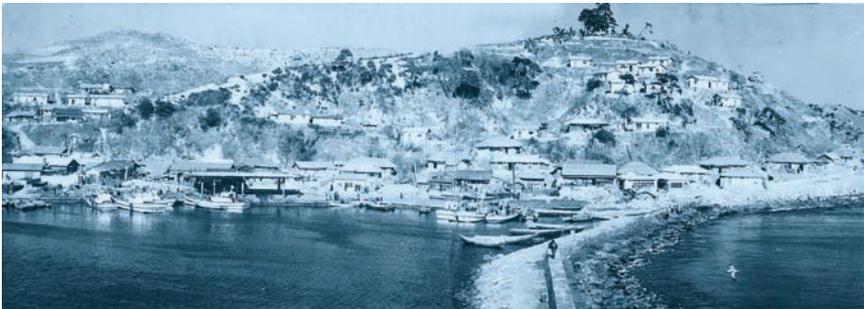
4) 청대리(靑垚里)

지금의 설악고등학교 일대를 청대리라고 하며 논산리에 속해 있다가 인구 증가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로 불리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입되었다.

마을 뒤편에 청대산이 있어 청대리라 하였으며 청대산은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 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230m이다. 소나무가 무성해 늘 푸른데다 칙, 산딸기, 밤, 산나물 등 먹을거리를 가득 담은 복주머니 같다 하여 청대산이라 한 것 같다. 또한 다른말로 '청두산'이라고도 부른다.

청대산 서쪽 봉우리를 산봉우리가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청대리 마을 한가운데를 '매자'라고 하며, 현재 설악고등학교가 들어선 골짜기를 '산지당골'이라 하는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랑골로 변화되었다.



70년대의 대포항 전경

자. 대포동(大浦洞)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와 내물치리가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1998년 동 통폐합으로 설악동과 도문동까지 대포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대포항의 설경

1) 대포리(大浦里)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대포라고 표기한데서 유래되었다. 또 외옹치리가 독재(독바위 부근의 고갯길로 추측되나 어느 고개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예전에는 중요한 통로였으나 새로 생긴 동쪽 해안 길을 이용함에 따라 사라져간 지명)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밖독재’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포리는 독재의 안쪽(육지 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여 ‘큰독재’라고도 하였다.

대포는 일제시대에는 상당히 큰 항구였고 1937년까지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다.

대포리에서 중도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나무꾼들이 쉬어갔다고 해서 ‘나무남재’라고 하였으며 예전 대포 재건 학교 뒤에 독처럼 생긴 큰 바위는 ‘독바위’ 또는 ‘병풍바위’,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대포 북쪽에 솟아 있는 산은 ‘마산재’라고 하는데 말처럼 생겼으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고 ‘마성대’라고도 한다. 대포 서쪽에 있는 저수지는 ‘방축’, 대포에서 남쪽 물치 쪽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마을은 ‘산두꾸미’,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은 ‘웃말’, 대포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은 기와집이 많아 사투리로 ‘지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화였다.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는 ‘큰골’, ‘회평골’로 불리는데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2) 외옹치리(外甕峙里)

조양동 새마을과 대포사이에 있는 바닷가 쪽 마을로 ‘밖독재’라고 불리어졌고, 조선 시대는 웅진리였으나 일제시대부터 외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외옹치항’은 대포항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으며 1980년대 개발된 소규모의 항구로 활어판매장이 있고 가리비 생산항이다. 속초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 휴양지, 해맞이 장소, 해양 박물관 건립 등 관광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항구이다. 외옹치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는 ‘기른네미’라 하였으며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는 덕이 있게 생겼다고 해서 ‘덕대바

위' 또는 한자로 표현하여 '덕대암'이라고도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조선 시대 덕산 봉수가 있었던 터라하여 '봉수터', '봉화터'라 불린다. 또는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고 하여 '봉끝'이라고도 한다.

조양동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는 '일곱매끼'라 일컬으며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있는 일대는 '장승거리'라고 한다.

3) 내물치리(內勿淄里)

설악산 입구 마을을 말하며 1966년 동계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쌍천'이라 하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를 이룬다. 하류 물치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흐르기 때문에 쌍천이라고 한 것 같다. 마을 남쪽으로 쌍천 못 미쳐 있는 작은 시내는 '군개'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이다.

쌍천 하류에 놓여 속초 대포동 내물치리와 양양 강현면 물치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쌍천교'로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은 '안가산'이라고 한다. '옹구점마을'은 옹기를 굽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설악 해맞이 공원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는 조선 후기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 유희일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원래는 새로 조성된 마을 한 가운데 있었으나, 마을이 조성될 때 현재 자리인 일출봉 횃집 뒤 철길 옆으로 옮겨졌다. 바닷가 쪽으로 속초8경(八景)의 하나인 '설악 해맞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잼버리 기념탑과 조각공원 및 관광안내소가 있어 관광객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차. 도문동(道門洞)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문은 동리 이름이자, 동시에 면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서 도천면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와 하도문리 중간에 행정상 중도문리가 신설되었다. 그 후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가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서 도문동이 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동통폐합으로 설악동과 합쳐 현재는 행정상 대표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닫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여 도문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은 다음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도문(導門)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뜰을 ‘도문뜰’ 또는 ‘도문평’이라고도 한다.

1) 상도문리(上道門里)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를 ‘그망골’ 또는 ‘거망동’이라고 한다. 이는 상도문리는 풍수 지리적으로 행주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로 표기하여 거망동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그망골이 되었다.

상도문리 동쪽에 웅기점이 있었던 마을을 ‘웅구점말’ 일명 ‘토기점’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웅구점말 입구 쌍천가에 있는 바위는 벼락을 맞아서 크게 갈라져 있다고 해서 ‘벼락바위’라고 부른다.

상도문리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는 배의 돛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돛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웅구점말(행정상 상도문리 2구)과 노학동을 연결하는 고개는 ‘짜리재’인데 사리재라고 하던 것이 짜리재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는 구불구불한 것을 가리키는 우리 고어이다. 따라서 사리재는 구불구불한 고개라는 뜻으로 사리라고 부르던 것이 고개

‘재’가 합쳐져 사리재가 되었고, 그것이 그 후 발음상 싸리재, 살인재로 변화된 것이다.

마을 앞(남쪽) 소나무 숲에 있는 육각으로 된 정자는 원래 ‘학무정’이나 ‘육모정’이라고도 하며, 속초8경(八景)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서북쪽 척산리와의 경계에 해발 338m 봉황 형국의 ‘주봉산’이 있는데 지도에는 주봉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주위에서는 모두 ‘주왕재’라고 말한다.

2) 중도문리(中道門里)

중도문리 1구의 다른 이름은 ‘골말’인데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며,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는 ‘대랑골’인데 뒤쪽을 나타내는 뒤우란골-뒤란골이 변화된 것이다.

중도문리 2구는 별판 마을이란 뜻으로 ‘별말’이라고 하며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중도문리 1구는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윗말’이라고도 한다.

하도문과 경계에 미국 오리건주 그레샴시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매시 기념공원’이 있고, 옆쪽에 속초시 출신의 전물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훈탑’이 있다.

3) 하도문리(下道門里)

하도문을 ‘송정리’라고도 부른다.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양짓말’이라고 하며 하도문 입구에 있는 마을은 ‘건너말’이라고 한다. 마을 서북쪽 골짜기는 과거에 고씨와 양씨가 살았다 해서 ‘고양터’라고 부른다.

쌍천가에 있는 소는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도깨비소라고 하던 것이 ‘도깁소’로 변화되었다.

카. 설악동(雪嶽洞)

1966년 동계 실시 전에 설악동은 ‘장항리’라 하였으며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1998년 동 통폐합 시에는 행정상 설악동은 폐합이 되고 대포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종래의 이름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장항에서 온 것으로, 이전에는 노루목을 중심으로 향성사지 3층 석탑 일대인 탑별, 비룡교 건너편 소토왕골 입구인 토왕성, 정고편 등지에 민가가 있어서 장항리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은 그 모습이 많이 변하였다.

1) 설악 관광단지 일대

설악산 관광 단지 일대는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를 ‘구단지’ 또는 ‘A지구’라고 하며, 1976년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의해 구단지의 여관, 상가가 철



설악산 관광단지 일대

거되고 그 밑(동쪽)에 새로 조성된 관광단지를 ‘신단지’라 한다. 신단지는 노루목 일대의 ‘B지구’와 종래에 ‘핏골’이라고 부르던 ‘C지구’로 구분된다.

소공원에서 비선대로 가는 중간에 있는 별판을 ‘정고평’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마등령으로 넘어 다닐 때 백담사의 곳집(창고)이 있었으므로 정고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고평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별판은 ‘군량장’이라고 하는데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군량장에 있는 큰 바위를 ‘군량암’이라 하는데 바위 모양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공원에서 비선대 쪽으로 가다가, 군량장을 지나서 정고평 못 미쳐 나오는 별판을 ‘치마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향성사지 3층석탑 일대의 별판, 즉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를 ‘탑별’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민가가 있었다. 케이블카 바로 밑 쌍천에 놓인 다리인 ‘비룡교’ 건너편 소토왕골에 있었던 마을은 ‘토왕성리’라 한다.

정고평에 한국동란 때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인 '무명용사의 비'가 있는데 원래 명칭은 '이름 모를 자유 용사의 비'이다. 정고평 무명용사의 비 뒷산 중턱에 있는 네모난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해서 '망바위'라고 한다.



이름모를자유용사의비

현재 B지구 일대,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를 '노루목'이라 하며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를 '노루목 고개'라 한다. 이 고개에서 장항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고개를 순수 우리말로 늘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를 '목우재'라 한다.

신흥사 앞 냇가는 '세심천'으로 쌍천의 한 줄기가 된다. 부처님을 참배하러 신흥사에 들기 전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에서 세심천이라고 하였다.

'권금성'은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로, 지금은 그 돌산 일대를 권금성이라고 부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2)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았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고 불린다. 장재터 별판을 '장재평'이라 한다. 마을 서남쪽 골짜기는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으로 '마무골'이라고 하며 마무골 서쪽 골짜기는 '물안골'이라고 한다. 이는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타.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자와 척산리 학사평(鶴沙坪)의 '학'자를 딴 것이다.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앞버덩'이라 하였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리, 척산리, 신흥리에 걸쳐 있는 넓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잡풀만 많은 거친 들판)은 노리에서 볼 때, 마을 뒤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 한자로 '후평'이라 하였다.

설악산 달마봉에서 시작되어,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청초천'이다.

1)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노동, 노동리라고도 했다. 이전에는 행정상 노학동 지역 전체를 관할했으나,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인구 증가에 따라 노리가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로 나뉘어졌다. 그러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지역이 합쳐져서 노학동이 되었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노동, 노동리, 노리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2)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로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 응동이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전해온다. 하나는 마을이 청대산, 두루봉 등 앞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 주었다고 하여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 서쪽 척산리와외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를 '사당골'이라고 한다

3)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 지역 동북쪽 지대에 위치한 마을. 본래 노리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으로 합쳐졌다. 한자로는 '도리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유래에 대하여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고 하나, 그것보다는 도리원이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의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4)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 이동, 이목리로 표기한 것이다.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돌배나무가 많았었기 때문에 '돌배나무골'이라고 하는데 동우대 뒷편에 해당된다.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샘골천'이라고 하는데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 지사였던 박경원씨가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하였다. 마을 북쪽 골짜기를 '장자골'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자, 즉 부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없고,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5) 척산리(尺山里)

이전에는 척산도 노리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

하여 척산리라고 하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으며,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는 농사철에 마을 뒷(남쪽)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마을 뒷산이 마치 곡척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이라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동네 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옷감이 마치 산처럼 쌓인다고 하여 척산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 서쪽 학사평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을 '가매소 개울'이라고 하는데 마을 입구에서 목우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을 형성한다.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가매소 개울 입구에 있는 소를 '가매소'라고 하는데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주봉산과 목우재 사이에 있는 산을 '명가산'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의 가산, 즉 재산이라는 면가산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목우재 개울'은 마을 남쪽 목우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로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 청초천을 형성한다.

가매소 개울 남쪽 마을을 '양짓말'이라 하고 가매소 개울 북쪽 마을을 '응달말'이라 하였다.

목우재와 달마봉(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해발 635m의 봉우리. 산봉우리가 달마대사의 모습으로 둥글둥글하다고 하여 달마봉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사이에 있는 터를 '파명당'이라고 하는데 현재 송신탐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 곳에서 학이 3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는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 '암지동'이라고 하였다.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는 탐이 남아 있어 '탐상골'이라고 한다.

6) 신흥리(新興里)

5·16혁명 후 군사혁명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뒷버덩에 새로 일으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963년 동제

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으나 신흥리라는 지명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학사평 끝(서쪽) 마을을 '상에동네'라 하는데 이는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 또는 상에, 상에동네라고 불렀다.

7)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별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딱한 별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자활촌은 학사평 별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1961 군사혁명 정부에서 깡패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모아서 학사평 별판에 집단 이주시켜 농토, 농기구 등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람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자활촌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학사평 남서쪽 골짜기를 '명당골'이라 하고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는 '심방골'이라 하며 달마봉으로 이어진다.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를 '미시령'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미시파령', '큰령'이라고도 한다.

파. 장사동(章沙洞)

고성군 토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나 속초의 발전에 따라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8년 동 통폐합 때 행정상 영랑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1) 사진리(沙津里)

장사동 횃집 일대와 속초고등학교 부근의 마을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

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닌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이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불리었고, 한자로는 사야지(沙也只),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부터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렀다.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은 강장군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해서 ‘강장군산’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역시 용촌리 용지호에서는 강장군이 탄 용마가 나왔다고 한다.

영랑호 동쪽에 있는 바위는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 ‘고바우’(고는 코의 옛말)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밭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형상이 윤선(輪船) 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 바위’라고도 한다.

속초고등학교 뒤 골짜기는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낭골’이라 하며, 해경 충혼탑이 위치한 산은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어 ‘서낭산’이라 한다.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은 ‘엄달개’라고 하는데는 엄달이라는 이름의 갯가라는 뜻이다.

마을 북쪽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연결되는 큰 고개는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해경충혼탑

2) 장천리(章川里)

영랑호 서쪽 마을로 장천의 ‘노루장’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나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하다가 장천(章川)으로 변한 것이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84m의 산봉우리는 ‘국사봉’이다. 영랑호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국사봉이다. 국사봉, 또는 그것과 발음이 비슷한 이름은 전국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낭신을 제사지내는 서낭당, 성황당, 즉 굿사당에서 유래된 것이다. 국사봉은 지금도 민속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사봉을 다른 말로 발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붓같이 수려하다고 하여 ‘문필봉’라고도 한다. 또 사진리에서는 ‘뒀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뒀, 즉 뒀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네 번째
이야기

역사의 흔적, 전통의 숨결

1. 속초의 문화재
2. 속초의 민속



네 번째 이야기

역사의 흔적, 전통의 숨결

1. 문화재(文化財)

가. 문화재관리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 유산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무형의 산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자원은 천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특히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문화재의 범주가 아주 좁았으나, 전후에는 그 대상을 미술공예품, 건조물, 사적(史蹟),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문화재를 법으로 지정하였으며, 제2조(정의)에서 ①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속초시 문화재 현황

속초시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3층 석탑,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1건이며,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신흥사의 경판, 극락보전, 보제루 등 8건이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신흥사, 도문동 김근수 가옥, 노학동 3층 석탑 등 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강원도 무형 문화재 속초 도문농요가 1건 등재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매장 문화재로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있는 장사동 출토 간돌검, 돌화살(6점), 교동 출토 청자 상감우점문완이 국립중앙 박물관에, 교동 고분 출토 청동순가락 및 향성사지 출토 기와 등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시 보호되고 있다.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6건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속초시 문화재현황(2013. 03. 11. 현재)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강원도지정문화재				강원도 문화재 자료	
		합	국보	보물	중요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속자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속초	26	11		3		1	5	2		15	8	1		6

순번	지정별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보물 (3)	443	향성사지 삼층석탑	설악동 산24-2	1966.08.25
2		1721	속초신흥사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극락보전내)	2011.09.05
3		1749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명부전내)	2012.02.22
4	사적 (1)	376	속초 조양동 유적	조양동 1529의 1필지	1992.10.10
5	천연 기념물 (2)	17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속초시 설악동 산20 외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965.11.05
6		351	설악동 소나무	설악동 20-5 및 15-21	1988.04.30
7	명승 (5)	95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설악동 산41	2013.03.11
8		96	설악산 토왕성 폭포	"	"
9		100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동 산40	"
10		101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일원	설악동 산41	"
11		103	설악산 공룡능선	"	"

12	유형 문화재 (8)	1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71.12.16
13		15	속초 신흥사 경판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보제루내)	1971.12.16
14		85	속초 김중우가옥	중도문길 74-7(도문동 1186)	1985.01.17
15		104	속초 신흥사 보제루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85.09.13
16		163	속초 신흥사 금고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보제루내)	2011.08.12
17		164	속초 신흥사 동종	〃	2011.08.12
18		165	속초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	2011.08.12
19		166	속초 신흥사 명부전	〃	2011.12.16
20		무형 문화재	20	속초 도문농요	상도문1길 16(도문동 199)
21	문화재 자료 (6)	7	속초 신흥사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84.06.02
22					
23		64	속초 김근수가옥	하도문2길 63(도문동 1504)	1985.01.17
24		115	속초 신흥사 부도군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91.02.25
25		127	속초 노학동 삼층석탑	속초시 노학동 山433	2000.01.22
26		137	속초 매곡오윤환선생 생가	상도문1길 30(도문동 195)	2006.07.28
		151	속초 신흥사 칠성도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보제루내)	2011.08.12

3)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가) 보물

(1) 향성사지 3층 석탑

○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24-2번지

「신흥사사적(神興寺事蹟)」에 의하면 향성사는 신라 고승 자장이 652년 (진덕여왕6)에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현존 신흥사의 전신이다.

이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세운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



향성사지 3층 석탑

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몸돌과 지붕돌은 각기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각 층 몸돌에는 양쪽으로 모서리 기둥을, 지붕돌 아래로는 5단의 지붕돌 받침을 조각하였고, 탑 꼭대기에 있던 상륜부(相輪部, 탑의 맨 위에 놓인 장식)는 모두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 9세기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다.

처음 해체 수리할 때 3층 탑신석 중앙에서 사리 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탑의 높이가 4.33m로 장엄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2)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72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극락보전 내)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은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1651년 무염에 의해 제작되었다.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

잡고 있는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주는 우리나라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은 극락보전 내에 중앙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상[向右]과 대세지보살상[向左]이 협시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무릎위에 내려놓은 중품중생인(中品中生印)의 수인으로 조성되어 있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미타불이다.

(3)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749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명부전 내)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木造地藏菩薩三尊像)은 1651년(효종 2)에 조성된 목조불상이다. 지장보살상은 중앙 불단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며,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두 손을 합장한 채 서있는 자세로 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정된 조형미와 온화한 인상으로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상은 높이 990mm, 무릎 폭 750mm의 크기로 두부와 상체·하체간의 비례가 안정되었으며, 지장보살의 좌측에 봉안된 도명존자(道明尊者)는 민머리에 두 손을 합장하고 서있으며 상호는 덕성이 그윽한 이목구비를 보여주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듯 온화한 느낌이다. 우측의 무독귀왕(無毒鬼王) 역시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듯 원만상호가 완연하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두 손을 합장한 채 서있는 모습이다. 신체에 비하여 두상의 비례가 다소 커 보이지만 동시대의 여타 사례에 비하여 안정적이다.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17세기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구 모두가 손상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작연대와 작가가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나) 사적

(1) 속초 조양동유적

○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76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29외 1필지

이 유적은 속초시의 남쪽 청초호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사시대 가운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들의 집터이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은 이 지역에서 모두 7채의 움 집터와 당시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2기(基)를 함께 조사하였다. 집터는 풍화암반층(風化岩盤層)을 40~60cm 깊이로 파내고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아 만들었는데 약 23~76㎡ 규모의 약간 긴 네모꼴(장방형長方形)로 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속초 조양동 유적

당시의 사람들이 약 7~23평 크기의 움집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집터에서는 당시의 생활모습을 밝혀주는 많은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집터가 발견된 구릉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고인돌에서 발굴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도끼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이 지역 선사문화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유적이며, 현재 복원된 주거지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001년 조양동유적지 사적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8년 1, 2, 4, 5, 6호 주거지를 복원하였다.

다) 천연기념물

(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17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20 외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이곳은 총 면적 4,950만평으로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태백산을 거쳐 차령산맥·소백산맥과 연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결된다. 식물분포상은 온대 중부의 대표적인 숲을 형성하고 있고 정상부 일대에서 보이는 고산식물군락은 지질시대의 기후변천에 따른 식물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분포 상 북방계통의 남방한계를 이루며, 남방계통의 북방한계 지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물분포상은 구 만주아구(舊 滿洲亞區)에 속하나, 표범·산양·반달곰·жат까마귀·솔새 등의 시베리아 아구적인 북방계의 동물들과 외눈이사촌나비·후치령부전나비·산부나비 등의 북방계의 곤충들도 서식하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의 크낙새·산양·사향노루·까막딱따구리 등을 볼 수 있으며, 물두꺼비도 다량 서식하고 있다. 또 설악산은 동서의 분수령 역할을 해, 내설악과 외설악간 어류의 분포가 뚜렷한 점으로 주목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2) 속초 설악동 소나무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5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0-5, 15-21

나무의 크기는 높이 17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 4.1m, 밑동 둘레 5.8m이며, 가지는 동서로 16m, 남북으로 19m 정도 퍼져 있다. 지상 2.5m 부근에서 나무줄기가 3개로 갈라졌으나, 양쪽 2개는 죽었고 가운데 줄기만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이는 확실하지 않으나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나무는 설악동으로 들어



속초 설악동 소나무

가는 입구에서 있으며, 지금까지 마을의 서낭당나무로서 잘 보호받아 왔으며, 현재도 설악동의 상징수로서 사랑받고 있다. 전해 오는 말로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나무 옆에 돌을 쌓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소나무 앞에는 큰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설악 관광로 개발로 인해 돌무더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명승

(1)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일원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95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비룡폭포는 외설악지역을 배수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雙川)의 지류가 화채봉(華彩峰)의 북쪽 기슭에 만들어놓은 폭포로 토왕골 계곡의 하류 쪽에 육담폭포(六潭瀑布)와 상류 쪽에 토왕성폭포(土王城瀑布)의 중간 지역에 있으며,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준다. 비룡폭포는 기반암 하천인



설악산비룡폭포 계곡일원

산지하천에 해당되며, 비룡폭포가 있는 하천은 토왕골이며, 폭포의 높이는 16m, 폭포 경사도는 44°, 폭포가 위치한 고도는 370m, 폭포의 너비는 16m임. 비룡폭포는 설악산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경관 중 하나이다.

육담폭포를 지나 1km 정도 올라가면 높이 약 16m의 힘찬 물줄기가 내리꽂히며 골짜기를 울리는데 폭포소리가 무상무념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설악산 일대를 유람하며 그 감상을 기록한 김창흡(金昌翕)의 「설악일기

(雪岳日記)」와 김몽화(金夢華)의 「유설악록(遊雪嶽錄)」이라는 유람기에 설악산의 비경으로 소개될 정도로 오랜 역사성을 지닌다.

(2) 설악산 토왕성폭포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96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토왕성폭포는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있다. 토왕성은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음.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

을 쌓았다고 한다. 폭포가 있는데, 석벽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토왕성폭포는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으로,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널어



토왕성폭포

놓은 듯이 아름답다.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가 합류해 쌍천으로 흘러들며, 역사적 기록으로 성해응(成海應 : 1760-1839)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서 토왕성폭포의 기이하고 웅장함을 묘사하였고, 김창흡(金昌翕 : 1653~1722)의 「설악일기」에서 토왕성폭포를 중국의 ‘여산’보다 낫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3) 설악산 울산바위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00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40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다. 시각적 풍경뿐만 아니라 예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다’는 의미에서 ‘천후산’이라 불리고 있어 청각적 감상도



설악산 울산바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울산바위는 그 자체로도 명승적 가치를 지니지만 원경도 빼어나 특히 미시령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준다.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울산바위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하며, 수많은 고시문이 전하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 있어 미술사적 명승의 가치가 뛰어나다.

울산바위는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하나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자체가 가지는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4)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일원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0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비선대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한다.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뿔려있는 길이 18m의 자연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전해온다.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등 금강산의 만폭동(萬瀑洞)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힌다.

천불동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의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문주담(文珠潭)·이호담(二湖潭)·귀면암(鬼面岩)·오련폭포(五連瀑布)·양폭(陽瀑)·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수

려하고 빼어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자연경관적 명승가치가 뛰어난 계곡이다.

천불동이라는 명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뤄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중 하나로 대표되며, 김창흡의 「설악일기」, 김몽화의 「유설악록」에서 설악산 비선대 주변의 경관을 극찬하였다.

(5) 설악산 공룡능선

○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03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41

마들령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가리키며,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 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



설악산 공룡능선

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구름이 휘감은 공룡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며,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4) 강원도지정 문화재 현황

가) 도 지정 유형문화재

(1)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4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로 1137

이 건물은 신흥사의 중심 전각으로 조선 인조 25년(1647년)에 지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봉안하는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다.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르면서 영원토록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이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중생은 무릇 누구나 지극한 행복을 원한다. 이 지극한 행복을 극락(極樂) 또는 안양(安養)이라 하는데, 누구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이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극락보전, 무량수전 또는 미타전이라고 한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창건 후 조선 영조 26년(1750)과 순조 21년(1821)에 각각 중수되어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양식으로 비교적 원형보존이 잘되어 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세음보살과 우측에 대세지보살을 함께 봉안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냈다.

(2) 신흥사 경판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5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로 1137

경판이란 나무 또는 금속에 불경을 새긴 대장경을 말한다. 대장경이란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을 담은 경(經), 부처님이 제정하고 제자들이 확정한 계율을 말하는 율(律), 이름난 고승들이 경전의 내용을 연구하여 집필한 연구서인 논(論)을 말하는 삼장(三藏),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전에서 나



신흥사 경판

온 서적들로 된 총서를 일컫는다. 신흥사의 경판은, 대형(大型)은 18.5×40cm, 소형(小型)은 18.5×30cm 크기로, 모두 280장이다. 목판 1장마다 양면에 양각으로 새기고 글자는 한글, 한자 및 범어를 사용하였다. 조선 효종 2년(1651)에 고승 호엽(昊葉)이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묘법연화경, 중례문(中禮文), 예수문(預修文), 결수문(結手文), 제청문(諸請文) 신흥사 경판 등의 판본을 장치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흥사사적」에는 조선 현종 2년(166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경판을 만든 고승 호엽은 조선 정조 21년(1797년)에 처기(處琦), 시택(始澤), 의유(毅有) 등과 함께 해장전(海藏殿)을 단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경판은 명부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부모은중경 언해본(父母恩重經 諺解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다라니경 등이 남아 있는데 참고적으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또한 다라니(多羅尼)는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法)을 버리고 한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한다는 뜻으로,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고도 한다. 따라서 다라니경은 온 마음으로 읽고 지니면 재액(災厄)을 피할 수 있다는 신앙에 의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3) 속초 김중우 가옥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85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74-7

김중우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모는 68.30㎡ (20.66평)이다. 조선 영조 26년(1750)경, 전주 이씨가 건립 후 4대를 계승해 오던 중 같은 집안 이주환이 매수 후 2대를 계승해 오다가 현 소유자 김중우(金宗友)의 선친 김시중이 매입하여



속초 김중우 가옥

2대째 내려오고 있다.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 밖에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딸려 있다. 집의 본채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고 마루 뒤에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전형적인 곁집 양식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전면 5칸, 좌측면 2칸, 우측면 5칸의 ㄱ자형 집으로 벽돌기단과 주초석(柱礎石)에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흘처마의 팔작(八作)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梁),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둥 길이가 2m40cm 정도로 짧다는 것이며 폭은 24.5cm의 사각형으로 굵다는 것이다.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창문은 쌍여닫이, 외여닫이로 되어 있고 곁문의 높이는 1m16cm, 너비는 94cm로 작고, 처마도 1m20cm밖에 되지 않는다.

(4) 속초 신흥사 보제루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04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신흥사 사천왕문을 지나 극락보전에 이르기 전에 서 있는 장방형의 누각이 바로 보제루이다. 보제루는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22.4m), 측면 2칸(8.5m)의 누마루식 흘처마 맞배지붕이다. 1861년에 이재황이 지은 보제루 중수기(普濟樓 重修記)에 의하면, 이 건물은 1644년에 건립되었고, 조선 영조 46



신흥사 보제루

년(1770)에 중수하였다. 또한 1813년 벽파, 창오, 부충, 성기스님 등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보제루 원래는 사방이 모두 개방 되어 있었으나 1971년 성준스님이 중수하면서 분합문을 달았다.

보제루는 누각식으로 되어 위층에는 다락공간으로, 하층 중앙칸은 극락보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장이 상당히 낮아 웬만한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

어가야 한다. 이는 누각 밑을 통과하면 곧바로 전개될 극락보전을 들어섬에 있어 고개를 세우고 교만스러운 자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숙인 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 유생들의 횡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유생들이 신흥사에 몰려들어 유흥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갓을 쓰고 들어가거나 말이나 가마를 탄 채 들어가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그러나 이 보제루와 같은 높이의 누각을 만들면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극락보전을 향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

보제루는 한국사찰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공간의 위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낮은 입구를 만들었다. 아울러 2층 누각의 지붕선은 설악산의 산형을 고려해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찰건물의 건축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래 사찰의 본전 앞에 세워지는 누각은 각종 법회를 거행하던 곳이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다.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졌으며 가는 문살의 분합문을 달았다. 건물 안에는 직경 6척 비자나무 통에 황우 6마리 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법고(法鼓)와 목어가 보존되어 있고 특히 네 벽에 시판(詩板)과 추사(秋史)의 친필이 있어 유명하다. 그리고 신흥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판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악루(海嶽樓)’ ‘외설악루(外雪嶽樓)’ ‘백설루(白雪樓)’ 등 한때 보제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현판들이 보관되어 있다. 보제루는 1985년 9월 1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었다.

(5) 속초 신흥사 금고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63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보제루 내



속초 신흥사 금고

신흥사 보제루 내에 보관되어 있으며,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측면에는 조성연기가 음각으로 새겨져있다. 전체에 문양은 장식되지 않았으며, 주조와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금고 측면은 용기선을 돌려 3구의 동심원으로 구획되었다. 중심에는 원형의 당좌가 조형되었고, 여타 문양은 장식되지 않았다. 금고의 옆면과 뒷면에는 글씨가 있는데, 뒷면에 쓰인 '신(神)'은 신흥사를 의미하는 글자로 후대에 추기(追記)된 것으로 보인다. 옆면에는 '神興寺 乾隆五十三年戊申七月日鑄重六十斤'의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정조12년 즉 1788년에 60근으로 금고를 제작하였음을 알려준다. 18세기 후반 범종 및 금고 제작이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신라 후기부터 전해지는 우리나라 금고 양식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지역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전해지고 있어 희소 가치가 매우 크다.

(6) 속초 신흥사 동종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64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보제루 내

이 동종의 명문대에는 양각된 명문과 함께 음각된 명문이 새겨져있다. 양각 명문에는 순치 13년(1656)과 건륭 13년(1748)의 기년이 언급되어 있고, 음각 명문에는 건륭53년(1788)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후자에는 현존하는 신흥사 금고의 주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정



속초 신흥사 동종

확한 기록으로, 신흥사에서 동종이 처음 주조된 시기는 순치 13년(1656)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 건륭 13년(1748)에 재주(再鑄)되었고, 또 다시 건륭 53년(1788)에 다른 동제품과 함께 주조된 사실을 「전대종기(前大鍾記)」를 추각(追刻)하여 밝혔다. 또한 건륭 53(1788)년에 이 종을 주조한 장인은 김봉태(金鳳泰)와 최해중(崔海重)의 2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 18세기 금속공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발원문을 통하여 조성시기와 시주질, 주조 장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7) 속초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65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보제루 내

그림의 구성은 중앙의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 세지를 비롯한 6구의 보살과 십대제자상이 협시하고 있으며 화면의 좌우상하에 사천왕상이 배치된 구도이다. 화면 중앙에 커다랗게 피어난 연꽃은 아미타극락정토의 연지(蓮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속초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이와 같은 형식의 불화는 「아미타극

락회상도」, 「아미타회상도」 혹은 「아미타설법도」 등으로 불리는데 아미타불상의 후불탱화로 제작되었다. 화면의 하단에 쓰여진 화기(畵記)에 따르면 이 아미타회상도가 그려진 것은 광서(光緒) 초년인 1874년이며, 그림을 그린 금어(金魚: 畵師)는 원명(圓明) 공우(巨祐), 서봉 응순(西峰 應淳)이며, 편수(片手)는 용하(榕夏), 법찬(法讚), 체훈, 철유(喆有), 광엽(廣曄) 등이다. 이들 가운데 용하, 철유, 광엽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척 신흥사 아미타회상도(1875년)의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철유나 체훈은 강원도뿐 아니라 경기도나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활동범위가 넓었던 화승(畵僧)들이었다.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조성시기와 시주질, 화승들을 알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다.

(8) 속초 신흥사 명부전

○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 제166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신흥사 명부전은 1737년(영조13)에 건축된 전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와 맞배지붕, 5량가의 단아한 규모이다. 장식이 없는 원형 다듬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약간의

민흘림이 나타난다. 내부 천장은 종량위에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전후로는 빗반자로 마감하였다. 외부로 뻗어난 살미첨차의 쇠서와 초가지가 유려한 곡선으로 조형되었으며, 내부 살미첨차에는 연꽃봉우리가 장식되었다. 또한 주두위의 대첨차는 교두형이지만 출목도리를 받치는 소첨차는 연화두형으로 우아한 장식미를 보여준다.



속초 신흥사 명부전

특히 외출목도리가 짜여지고, 쇠서형 초가지로 장식된 첨차 등은 주심포양식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동시대의 건축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건물의 전면에 설치된 창호는 부처님과 스님이 드나드는 중앙의 여간은 정상적인 크기의 창호를 설치하고, 불자와 일반인이 드나드는 좌우 협간은 성인키보다도 작게 만들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성스러운 불전에 들어갈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개를 숙여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하심(下心)을 유도한 것으로 이러한 독특한 창호는 한국건축사상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유래된바 없는 유일무이의 사례로 그 가치가 크다.

나) 도지정 문화재자료

(1) 속초 신흥사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7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로 1137

속초시 설악산의 동쪽 기슭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神興寺)는 원래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된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9층 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신라 효소왕 10년(701년)에 화재를 입어 소실

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암자인 능인암(能仁庵) 터에 다시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했던 선정사 역시 조선 인조(仁祖)22년(1644년)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영서(靈瑞), 연옥(連玉), 혜원(慧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고 선정사를 원



속초 신흥사

터의 10리 아래에 증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신흥사(원래는 ‘神’興寺였으나 현재’新興寺로 개명)이다. 조선 현종 2년(1661)에는 해장전을 창건하여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예수문, 제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으며, 조선 영조 13년(1737)에는 명부전을, 조선 순조 13년(1813)에는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을 세웠다. 대한 강희6년에 건봉사 말사가 되었으나, 신흥사는 1971년에 건봉사 대신에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2) 속초 김근수가옥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64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하도문2길 65

이 가옥은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격은 69.80㎡(19.9평)으로 확실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동안 함평 이씨가 살다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 김근수가 매입하여 살고 있다. 소유자에 의하면 현재 지붕 위의 기와



속초 김근수 가옥

에 ‘도광 5년(道光五年)’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도광 5년은 서기 182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 가옥은 적어도 180년 전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륭(乾隆) 27년(1762년)이라고 새겨진 수키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가옥이 243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가옥은 겹집양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채인 안채 중앙에 마루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다. 마루 뒤에는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두었다. 이는 대표적인 산간지방의 중앙 구들형 6칸 겹집양식 ㄱ자형 집이다. 주초석 위에 각기둥을 사용했으며 납도리 흘처마의 팔작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으로 모두 16량이며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사찰공법으로 처마 끝이 올라가게 지었다는 것이며, 전체 집 높이가 낮고 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좌측 사랑방 출입문 높이가 27cm밖에 되지 않아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부엌문과 대청의 경우 나무를 도끼로 다듬어서 만들었으며 대문에는 ‘용호(龍虎)’ 글자를 붙여 놓아 액을 막고자 했다. 사랑방 옆에는 대리석 경치들로 장식을 하였고 담은 흙담으로 상단에 기와를 얹었다.

(3) 속초 신흥사 부도군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5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26-3

신흥사 부도군은 원래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6년 여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부지(130 여평 규모)로 옮겨지게 되었다. 부도란 명칭은 불타(佛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도(佛圖), 부두(浮頭), 포도(浦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스투파(탑파)의 전음(轉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원상으



속초 신흥사 부도군

로 불타가 곧 부처이므로 불상과 불탑도 부도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승려의 사리탑인 승탑(僧塔)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와 같은 예우를 해주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도는 불가에서 승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으므로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도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말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신흥사 부도군에는 석종형이 10기, 원당형이 9기 총 19기, 비석 6기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4) 속초 노학동 삼층석탑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27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433

이 석탑은 단층기단(單層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1층 탑신과 지붕돌(屋蓋石)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2층 지붕돌과 3층 탑신, 3층 지붕돌과 노반(露盤, 탑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붕돌)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고, 2층 탑신은 없어졌다. 탑의 가장 큰 특징은 1층 탑신의 4면에 사방불(四方佛)을 조성한 점이다. 연꽃 받침 위에 원형 머리 빛(頭光)과 몸 빛(身光)을 갖춘 좌상(坐像)을 조각하였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알 수는 없지만 안정감 있게 돌을새김 되었다. 강원 영동지방의 석탑 중에서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석탑으로, 조성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높이는 1.8m이다.



속초 노학동 삼층석탑

석탑을 중심으로 약 200평의 대지가 마련된 점과 기와 조각과 석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암자 터로 추정된다. 신흥사의 부속 암자인 소림암(小林庵) 터라고도 하지만 현 위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5) 속초 매곡오윤환선생생가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37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상도문1길 30

속초지역의 유학자이셨던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의 생가로서,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겹집이다. 본채 전면에는 머름대가 있으며, 안채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이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으며, 윗방에는 뒷마루가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후원을 거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윗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속초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6) 속초 신흥사 칠성도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5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로 1137 보제루 내

중앙의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좌우에 권속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치성광여래 좌우 상단에는 북두칠성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칠불이 등장하며, 그 아래에는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과 칠원성군(七元星君), 그리고 28성수(星宿) 중 6위를 포함한 총 14위의 성군과 성수가 배치되어 있다. 그 중 남극노인성(南



속초 신흥사 칠성도

極老人星), 즉 수성(壽星)은 19세기 불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도상인데, 정수리가 높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성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고 수명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널리 숭앙되었다. 화면의 하단에는 붉은 바탕 위에 묵서로 쓰인 화기가 남겨져 있다. 아래의 화기를 통해 이 칠성도가 1901년 신흥사에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의 총 책임자인 금어비구(金魚比丘)는 경연(慶演)이다. 1901년인 20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으로 화면 여기저기에 얼룩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강원도의 경우 남아있는 칠성도의 수량이 적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1) 속초 도문농요

○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0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산33-4

속초 도문메나리농요는 속초시 상도문마을에서 조선시대부터 전승된 농업노동요로 체계적 전수와 전승기반이 확립되어 있다. 이 농요는 2003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아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



도문 메나리 농요

받았다. 이 마을에서는 2005년 4월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69명)를 결성하여 전수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악문화제,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등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속초농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도문메나리농요는 조선조 후기 이 마을에 살았던 고오세준, 박남식씨가 불렀으며 과거 김남형과 오순석씨 등이 보존회를 이끄는 등 전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속초 도문메나리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렀으며, 일제강점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메나리’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된다. 도문메나리가 삶

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 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민속(民俗)

가. 속초 민속의 개관과 실제

민속이라 함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생활 속에 정착되는데 한 지역을 구성하며 삶을 영위해 가는 구성원들에 의해 특수한 모습으로 잔존되거나 소멸해 가기도 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향토민속은 고유성을 갖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전파 속성에 의해 타 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보편성을 띠기도 하며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니고 전승되기도 하는데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 풍토에 의하여 형성되고 생활약식이나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유희, 관습 등을 내포하게 된다.

속초민속의 특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승문화적 속성을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산악과 해양의 민속현상과 아울러 호수를 배경으로 한 민속 문화의 생성도 흥미로우며 영랑호와 신라화랑, 청초호수의 논피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도 속초의 지역성을 보여 주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세시풍속(歲時風俗)

속초의 세시풍속은 산간과 어촌 등 마을 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부터 속초 지역에서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행해졌다.

2) 통과의례(通過儀禮)

통과의례라 함은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으려 할 때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 형식을 말한다. 흔히 중국식으로 관혼상제를 뜻하기도 하여 4례(四禮)라는 말도 써 왔다. 물론 4례는 중요한 통과례임을 알 수 있으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

고 지역마다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지금의 실정으로 보면 사례 중에서 관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여 혼례에 부분적으로 흡수되었고, 전통 혼례도 특별하게 치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위 신식 예식장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비교적 전통 양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여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간소화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장의사의 규격화된 형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3) 의식주

가) 의생활(衣生活)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의생활은 방직, 염직, 복식, 세탁에 이르기까지 불과 20~30년 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속초 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 짜는 집안이나 누에 치는 집이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의복의 간소화는 바쁜 현대 생활의 추세에 따르는 시대적 현상이므로 평상복이나 노동복에서 현저하다. 다만 혼례복, 돌옷, 수의 등은 예전의 민속복 양식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옷감도 화학섬유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복의 경우 베·모시·옥양목·광목·명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의생활은 기후와 생활양식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데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한 관계로 복식은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속초가 위치한 영북은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해양과 산악의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아 어촌의 복식과 산악의 복식은 차이를 보인다.

나) 식생활(食生活)

식생활은 의생활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속초는 내륙 쪽의 경우 비교적 농경 생활을 해 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일찍이 생산되어 왔으며, 산간 쪽의 경우에는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등이 생산된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긴 동해안에서 각종 해산물이 생산되어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속초의 산간 지방은 구황

식품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도문, 노학 등 평지는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식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속초의 식생활은 김치류·떡류·장류에 있어서 소박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데 해안 지역은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쓰고 있다. 대부분 지저 먹는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물 좋은 생선으로 얼간 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도 많다. 또한 신선한 어물은 회감으로 많이 이용하고 탕류로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주식은 쌀, 감자를 쓰고 잡곡으로는 메밀이 주로 쓰인다. 이외에도 옥수수, 도토리 등을 이용한 식생활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짓갈은 명란젓·서거리젓·창란젓·바다게젓이 대표적이고 요즘은 멸치젓·새우젓·멍게젓도 많이 쓰고 있다. 설악산에 인접한 동네에서는 산채를 캐서 식생활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고버섯·송이버섯 볶음뿐 아니라 송구떡, 취떡, 칫떡 등의 떡류나 송이 나물범벅, 도토리국수, 메밀국수 등도 만들어 먹는다.

다) 주생활(住生活)

강원도의 영동 지방은 영서 지방과 달리 앞은 동해에 접하고 뒤는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어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주거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거생활 중 주택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풍토적 조건과 생활양식에 의하여 그 모양과 구조를 다르게 한다. 즉 기온의 고저, 강우의 다소, 바람의 강약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택의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혈족을 가족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고 주택은 가족이 점유한 최초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옥을 크게 나누면 가옥이 점유한 '가대(家垓)'와 가대 위에 설치된 구조물인 '집'으로 볼 수 있다. 가대와 구조물은 풍수와 오행사상에 의하여 선정되고 축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관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대로서 전형적인 형국은 등고(登高)한 곳을 피하고 뒤로는 산이 있으며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오향(午向) 즉 남향하여 양지바른 터를 전형적인 집터라고 한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내닫고 있어 영의 동서 하천들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므로 배산임수의 남향 대지가 지세로 볼 때 저절로 이뤄진 곳이 많으며 취락도 이 원리를 따라 발달한 곳이 많다. 속초는 쌍천과 청

초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그 북쪽에서 남향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4) 민속신앙(民俗信仰)

가) 민간신앙

다양한 전승 체계를 갖춘 신앙으로 속초 지방의 경우도 복합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안에서 신봉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마을 신앙, 무속인들에 의해 지속되는 굿, 점복 따위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민간신앙의 신앙적 체계나 신봉자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토속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나) 집안 신앙

속초 지방에서 모시는 집안 신은 성조신, 조왕신, 삼신할머니, 토지신, 균웅신, 영등신, 용왕신, 축신 따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신을 위하는 상황이 다른데 안택제의 경우는 성조·토지·조왕신을 함께 제사한다. 정월달이나 음력 10월 중에 좋은 날을 받아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나쁜 것을 안 보고 금기를 하며 팔시루떡과 제물들을 마련하여 빈다.

음력 2월, 6월, 12월은 피해서 가족의 생기와 일진을 맞추어 날 받는 사람에게서 길일을 받아 온다. 제사할 때는 집안 대주 즉 남자 주인이 주로 하며 무당을 청하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는 집 대문 쪽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배가 있는 사람은 안택제를 지내고 나서 배에 있는 배성주를 위한다. 배성주는 실과 한지를 배의 선장실에 따로 집을 만들어 걸어 놓고 모시는데 그 해 처음 잡은 고기도 함께 매단다.

이외에도 ‘조왕신’, ‘쇠구영신’, ‘삼신신앙’, ‘영등할머니’, ‘지신제(地神祭)’가 있다.

다) 마을 신앙

마을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성황제(城隍祭)라 할 수 있는데 속초 지방도 예외는 아니며 동리마다 성황당(서낭당)이 존속되고 있다.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비는 뜻에서 성황제가 행해지는데 마을마다 제사 일

에는 차이가 난다. 장사동은 음력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택일하고, 도문동은 동짓달 초순에 택일하며, 영랑동은 단오와 동짓달에 두 번 지내는데 3년에 한번 굿을 한다. 대포동은 음력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여 지내고, 외옹치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물치는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여 지낸다.

영랑동, 중앙동, 장사동 서낭당에서는 화상이 걸려 있는데 성황신을 상징하고 있다. 장사동 서낭제의 축문에는 풍년과 만선, 재액 소멸 등 마을 신앙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속초의 관문인 대포는 옛날 도천면 사무소 소재지로 속초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유명했던 대포항을 끼고 내물치, 대포, 외옹치 등 3개 자연 마을이 형성되어 소수의 농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이 고기잡이를 주생업으로 하여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성황제는 무사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성황제 풍어놀이도 마을 주민 전체가 자리를 같이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왔다. 일찍이 3개 자연 마을마다 성황당을 짓고 해마다 성황제를 지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을 신앙으로 또한 산신제가 있는데 설악제는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악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잡지 제사조에서 볼 수 있는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은 대중 소사로 나누어 제사지냈다. 이중 소사(小祀)로 설악이 들어 있으므로 설악산신제는 신라 때부터 행해졌다고 하겠다.

설악제에는 단순한 신앙적 측면의 산신제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제전을 통해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보편적 이상이 담겨 있다.

설악제는 설악동에서 신목을 택하여 봉안하는 강신 행사로부터 시작하여 제사를 지낸 후 산신이 내린 신목을 모시고 속초 시내를 돌아 지정된 장소에 안치한다. 지역 주민 및 각급 기관장들에 의해서 조전제를 지내는데 설악대제라 하여 설악산신, 동해용왕신, 속초 성황신을 함께 봉안하여 치제 한다. 이러한 대제는 속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악과 해양, 자연



설악제 채화 의식

마을 단위로 치성을 드리는 것을 화합축제의 측면에서 합동으로 제사하는 것이다. 설악제는 토착 신앙으로서 산신제에서 산악 무사고를 비는 행사로 1966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후 산악인뿐만 아니라 전 속초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도시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설악제 조전제

라) 무속 신앙(巫俗信仰)

무속 신앙은 무당들에 의해 치러지는 굿의 형태를 지칭하는데 개인 가정 굿과 마을 공동 굿이 있다. 공동 굿은 시장에서 하는 별신굿과 어촌의 풍어굿이 있다.

속초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굿으로는 청호동에서 행한 용왕위령굿과 외옹치 고폘이 굿, 모내기 수살굿 등이 지역성을 반영한 굿들이다. 용왕 위령굿은 속초 시내 8개동 중 어민이 가장 많은 어촌 마을인 청호동에서 어로 중 바다에 희생된 어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굿이다. 이 굿은 빈순애, 김명익 외 속초 무속인들이 참여하여 제21회 설악제 때 선보였다. 외옹치 고폘이굿은 전영문, 서원순씨가 고증하여 1983년 1회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속초시 대표동은 동해의 관문으로 외옹치는 밧독재라고도 부르는데 독재는 독바우고 개라는 뜻이다. 고폘이는 성황제와 용왕굿으로 나뉘어 행해지는데 장승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4) 민속(民俗)놀이

민속놀이는 예부터 즐겨오던 놀이로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더러는 요즘에 전자 오락에 밀려 차츰 없어져 가는 형편에 놓이기도 하나 아직도 농·어촌 마을에서 고유한 민속놀이는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속초 지역의 민속놀이는 산촌, 어촌, 자연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서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로 1986년 설악제에서 행해진 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 출연했던 민속놀이를 보면 향토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정다지기(영랑동), 든대질놀이(동명동), 짱치기 놀이(중앙동), 가마싸움놀이(금호동), 만천광대놀이(교동), 도리원 풍년마당놀이(노학동), 장원 놀이(설악동) 등이 있었으며 1985년도에는 논피호의 불꽃놀이(중앙동)가 재현된 바 있다.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제

가) 아동놀이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비사치기, 팅벳기, 풀각시 놀이, 짱치기

나) 어른 놀이

논피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만천광대놀이, 든대질 놀이, 지정다지기, 도문 봇물 싸움 놀이



연 날리기

(1) 도리원 농악

도리원은 노학동의 작은 마을로 주업은 농업이었으며, 예로부터 농악이 발달되었다. 지금도 농사가 끝난 후 마을 행사로 농악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속초 도리원 농악은 1900년대 이전부터 마을에 농악대가 구성되어 발달되었으며 1910년 대 경기도 출신 이설기가 도리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속초 도리원 농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초기 농악은 대체로 영동 지역 농악과 비슷하였으나, 이설기가 도리원 농악에 가담하게 되면서 경기 웃다리 농악이 가미된 '속초 도리원 연희 농악'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후 1930년대와 40년대 말까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성대하게 공연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는 전쟁과 어려운 경제 환경에 의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삼척), 서부 지역(경기도 수원 등)까지 연희지역을 확대하고 초청공연까지 다니면서 활



1950년대 말 도리원 농악 공연

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농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도리원 농악의 전승 및 발전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전수가 되지 않아 도리원 농악이란 이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1990년에 속초 문화원에서 도리원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승자들이 이미 많이 작고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농악의 부흥을 위하여 설악 문화제에서 동 대항 농악대 경연을 시작하면서 그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여 1995년 12월 속초 도리원 농악대의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등을 중심으로 재창단되었다.

도리원 농악의 판놀음은 고증자들의 구술과 시연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나, 농사풀이 부분이 가미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농사풀이로 씨뿌리기와 모심기 등을 했다고 하나 1960년대 말부터 타지역에서 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므로 도리원 고유의 농악을 재현하기 위해 1950년대 이전의 고증에 따라 개인놀이와 동고리놀이를 보강하여 전수하였다.

도리원 농악의 놀음은 인사굿, 달팽이굿(황덕굿),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글자놀이(도리원), 개인놀이(무동, 소고, 벽구, 열두발상모놀이),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 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어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호동 주민들은 청초호가 열면 그것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청초호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

의 수량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같면 이듬해 풍년이고,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같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아놓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을 친다.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하고 용선놀이가 전한다.

(3)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만천동은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옛 지명으로 이곳의 나룻배 싸움놀이는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선보였다.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다. 그런데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의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 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마을은 풍어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 종일 가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동네 청년들은 용신제를 올려 풍년과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에게 인사를 한 후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과거의 노젓기 시합



현대의 노젓기 시합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나누며 흥을 돋운 다음 서로 힘 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 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 싸움놀이의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벌인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한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힘껏 싸움놀이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혼례 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도 하며 육지의 가마싸움놀이와 비슷한 형태이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싸움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풍요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나룻배에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장정들을 뽑아서 태우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함수룡으로 상징되는 나룻배싸움이 결국 하나로 화합되기 위한 절차이며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는 용선희(龍船戲)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양민속으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 도문 봇물 싸움놀이

도문보(淤)는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 경계에 흐르는 쌍천면에 위치한 사람인(人)자 보로서 조선 중엽부터 근 300년 간 5, 6월에 한해(旱害)가 들면 강현면과 도문동의 농가에서 나와 물싸움을 벌인 곳이다.

이 봇물싸움에는 100여명 이상이 동원되는 영동 제일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석전(石戰)이 쌍방간에 벌어지는가 하면 밧줄로 보를 파는 주민들을 밀어내는 패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쌍방간에 싸움이 커지면 대포주재소에서 나와 양 대표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강

현면 지구는 60% 도문지구는 40%로 나누어 물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관개수위가 원활해져서 두 마을은 싸움이나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이 붓물싸움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놀이화하고 있다.

(5)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물치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는 속초의 중심지역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풍어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어제는 3년에 한 번씩 올려지며, 3일 동안 12마당굿을 펼치며 벌어진다.

용떡놀이는 용왕굿의 한 과정으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각기 제사상을 하나씩 용신에게 바친다. 이 제사상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용떡과 오방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녀들과 주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속초의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내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마을제와는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포동 물치 용왕굿은 3년마다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며,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사흘 밤낮 굿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용왕굿은 부정굿, 성황굿 등 12거리가 행해지는데 마지막 거리인 뱃놀이 굿이 끝나면 축항에 나가 물굿(용왕굿)을 지낸다. 이 때 선주들도 각자 작은 제사상을 준비하여 축항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용왕신에게 바쳐진 용떡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며 놀던 축제이다.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의 구성은 제례, 용왕굿, 액막이, 용떡놀이, 오방기놀이, 뒷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6) 논피호 불꽃놀이

청초호의 옛 이름은 '논피호'로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조선 시대부터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불꽃놀이를 한자로는 '낙화유(落花遊, 落火遊)'라고 하며 청초호에서는 조선 숙종 때 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피호에 꽃배를 띄우고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때 널빤지애다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기쁘게 했다 한다. 불꽃놀이를 할 때에는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독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은 선정을 바라는 지방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민관일치의 우의와 환영의 뜻을 보여준 것이다.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시대 말엽으로 불꽃놀이 중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어 그 뒤로부터 위험하다고 폐지했다고 한다.

(7) 만천광대놀이

만천 마을은 나룻배 싸움놀이 외에 해마다 한가위를 맞아 일년 동안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고 다음해에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광대놀이를 행하고 있다. 놀이방식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조금씩 거두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농악 소리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 액운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는 풍습에 따라 집집을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물치 마을에서도 정월 대보름날 탈을 쓰고 노는 잡색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천동 광대놀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8) 속초북청사자놀음

남한에서 가장 처음 북청사자놀음을 한 곳은 속초의 아바이마을이라고 불리는 청호동이다. 실향민이 모여든 이곳은 자연스레 이북의 생활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북청사자놀음은 그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향민 1세대가 더 이상 북청사자놀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북청사자놀음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북청사자놀음의 원형을 발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결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은 삼국시대의 기악(伎樂)·무악(舞樂) 이래 민속놀이로 정착된 가면놀

이로, 주로 대륙계·북방계인 사자무가 민속화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북청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여러 마을에서 장정들의 편싸움이 벌어졌으며, 달이 뜬 뒤부터 시작된 사자놀음은 1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16일 이후는 초청받은 유지(有志)의 집을 돌며 놀았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6·25 전쟁 후 속초에 살던 북청사람들이 군민회를 조직하여 사자놀이를 하면서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래 여러 차례의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선보이며 알려지게 되었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북청사자놀음은 樂·舞·劇이 함께 어울리는 민속공연문화의 백미라고 일컬어진다. 사자놀음을 비롯해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팽가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재미는 사자놀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입사자 만들기 등 다양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사자놀음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놀이꾼이 나와 뉘두리춤, 꼬추춤, 사당 거사춤, 칼춤 등의 볼거리를 보여주는 점도 북청사자놀음의 특징 중 하나이다.

5) 민요(民謠)

민요는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이 노래로 표현된 것인데 지방마다 독특한 향토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정선 아라리, 강릉 오독떼기, 삼척 메나리 등은 강원 지방의 향토 민요가 자생적인 기반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 지방은 과거에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농요(도문메나리)는 도문동 등 양양과 가까운 곳에 주로 남아 있고, 설악산 등 산악 지방에서는 초동들이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나 핏골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던 노래, 산삼 캐는 심메 노래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업요는 속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수가 아직도 불리고 있다. 어업노동요는 크게 나누어 배를 바다에 진수할 때, 닻을 올릴 때, 입·출항시, 그물 당길 때, 고기 퍼 올릴 때, 그물에서 고기를 털 때 등으로 다양하다.

가) 도문메나리

도문메나리농요는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아직까지 전승되어 온다. 도문면은 속초에서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기에 정착한 곳 중 하나이며, 마을 형성시기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곳이었다.



도문메나리농요

따라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노동요가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짝을 지어 논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농요로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그 전통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그 소리의 원형을 그대로 전승됨에 따라 금상을 수상하면서 보존회가 구성되어 속초의 민속문화재로서 역할 기능을 하고 있다.

나) 속초 어업요

속초의 어업노동요는 속초민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청호동,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지역에서 주로 불린다. 청호동의 김형준, 장사동의 전봉준, 동명동의 신재덕 씨가 잘 불렀는데 청호동은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많고 일제시대 때 일본 말로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

속초 어업요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베끼소리',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배를 바다로 이동시키는 '든대질소리'가 있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이 들어간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퍼내면서 부르는 소리는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을 지닌다. '든대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 소리'라고도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일종이다.

이외에도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부르는 민요로 돈돌날이가 있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돈돌날이는 회전을 의미하고 또한 동틀 날인 여명을 상징하는데 북청 사람들이 일제의 외침과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항일민요이기도 하다. 돈돌날이는 함남 북청군을 비롯하여 홍원, 함흥, 이원, 단천, 풍산, 갑산, 함북 성진 등에 전승된 민요로 봄철나비, 해가 떨어진다, 거스러미노래, 미나리꽃, 전갑섬타령, 삼천리노래, 양유나청산, 라리라 돈돌 리띠리 등과 함께 불린다. 돈돌날이 춤도 낙천적인 특색을 지닌다. 돈돌날이 민요는 속초에서 애원성 민요와 함께 들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속초의 관광과 예술의 역사

1. 관광업의 역사
2. 속초의 시대별 예술사



다섯 번째 이야기

속초의 관광과 예술의 역사

1. 관광업(觀光業)의 역사

속초는 숲이 우거지고 물과 공기가 맑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역이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와 청정한 계곡,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파도, 온천과 호수 등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의 경관만을 놓고 볼 때는 실로 한국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설악산의 일부가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의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각종의 희귀한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가. 관광의 역사

동해의 광활한 바다와 설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경제개발로 인한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은 속초를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관광산업의 형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숙박업소의 확충과 근접도로망의 개설 등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2002년 4월 양양국제공항개항, 중앙고속도로 개통,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설은 향후 관광사업의 청신호로 기대된다.

속초시의 관광이벤트 행사 중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는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일원(124,000평)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행사로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4개 지방자치단체, 8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한 대규모의 행사로서 속초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를 위해 속초시는 미시로, 온천로 등 도로 9.72km 개설, 도로구조 2개 노선 2.55km 개선, 도로시설 10개 노선 7.54km 정비, EXPO광장(주제관, 상징탑, 부지 7,104 평)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또한 이 행사를 계기로 시 역사상 초유로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로 돌입하였고, 이후 주요도시 현지관광 홍보와 전국단위 행사유치를 통한 전천후 관광객 유치 활동의 성과로 2002년도에 1,300만 명을 초과하여 관광객의 수를 꾸준히 늘려 왔다.

나. 속초지역의 관광 자원 현황

구 분	관광자원	현 황
자연공원	설악산국립공원	· 토왕성 등 14개의 폭포 · 천불동 등 11개의 계곡
관광단지	설악한화	· 콘도미니엄, 온천장, 골프장, 드라마세트장
관 광 지	속초해수욕장	· 백사장 1km(폭 30~50m), 수심 0.5~1m
유 원 지	척산온천	· 호텔, 예방의학센터, 월드스파
	영랑호	· 호수둘레 8km · 콘도미니엄, 골프장
	영금정	· 바다와 연결된 해변유원지
온 천	척산온천	· 강 알카리성(PH 8.96) · 수온 42~53℃ 4,300톤/일
	설악워터피아	· 단순천 · 수온 47℃ 1,150톤/일 · 야외온천 및 워터 슬라이드, 유수풀
대표축제	설악문화제	· 설악대제, 산신제, 등산대회 등
박 물 관	속초시립박물관	· 생활민속자료,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다. 체험관광 상품 현황

구분	상품명	기간	내용	비고
문화형 체험상품	해맞이축제	1월 1일	선상 퍼레이드, 소망풍선 날리기, 공연 등	속초해변, 해맞이공원
	정월대보름 행사	1월 중	연날리기, 떡메치기, 액짚태우기 등	청초호유원지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	7-8월 중	미니콘서트, 영화제	엑스포공원, 해맞이공원
	오징어맨손잡기 축제	7-8월 중	오징어 맨손잡기, 배낚시 체험	장사항
	대한민국음악 대향연	8월 중	유명 연예인 공연	청초호유원지
	설악문화제	10월 중	설악대제, 산신제, 등산대회 등	청초호유원지, 설악산
	학사평 순두부축제	10월 중	요리대회 등 음식체험	콩꽃마을
	석봉도자기미술관	연중	도자기 제작체험	
	테디베어 팜	연중	곰인형 체험	
모험형 체험상품	설악국제 트레킹대회	10월 중	코스별 설악산 트레킹(걷기)	설악산 일원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7월 중	철인3종경기	속초시 일원
휴양형 체험상품	온천체험	연중	척산온천, 설악워터피아, 설악파인리조트 온천	
탐방형 체험상품	관광유람선, 갯배	연중	엑스포유람선, 청호동	
	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연중	속초시 문화체험	
	설악산 생태전시관	연중	테마별 전시	설악산탐방안내소

2. 속초의 시대별 예술사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예술 활동은 문화적 인식이 높은 몇몇 아마추어 동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속초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초창기의 지역 예술 활동은 대체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사가 전문교육을 받은 집단이고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동아리 조직이나 서클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가. 1963년 이전

속초시의 문화예술활동은 1963년 시로 승격하기 전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기록할만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전쟁과 관련해 속초를 잠시 살다간 당대의 예술가 두 명을 소개한다.

1) 고복수와 황금심

고복수는 민족항일기부터 1960년대까지 활약한 대중가요 가수이다. 그의 아내 황금심(黃琴心)도 광복 전후 최고의 인기여가수 중의 하나였다. 1932년 콜럼비아레코드사 주최 조선일보사 후원의 전국남녀가수신인선발대회에서 2등으로 입상, 가요계에 등장하였다.

1942년 이후 「풍년송」을 부부가 열창하였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광복 후 전옥(全玉)이 주관하던 백조악극단(白鳥樂劇團)의 주요단원으로 활약하였다. 1950년 인민군에 붙잡혀 의용군에 강제 입대되었고, 그해 늦가을 국군에게 구출되어 군예대에 편입, 활동하였다.

이들 부부와 속초의 인연은 이때 시작되었다. 1953년 초반 그러니까 휴전이 조인되기 이전에 고복수 황금심 부부는 강원도 속초지구의 군부대에 위문 공연자 왔다가 속초에 잠시 눌러 살게 되었다. 당시 5사단 28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노인의 회고에 의하면 고복수의 노래에 몹시 심취한 장교 한 사람이 그들 부부를 붙잡아 두고 속초 시내에 다방을 차려 주며 생계를 이어 가도록 하였다.

모두가 살기 힘들었던 시절 이것은 대단한 배려였다. 계급이 대령이었던 그 장교의 이름은 고복수와 성씨가 같은 고백규라는 분이라 하였다. 양곡이 귀하던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밀주를 고복수 내외가 직접 담아서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장교들에게는 대단한 인기였다. 이는 고복수가 아마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장교들의 후의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고복수는 1960년 극영화 「타향살이」를 제작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서적외판원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다가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

2) 김옥규

김옥규 화백은 실향의 한을 간직한 채 떠나간 예술인이다. 그의 운명은 역사의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한 예술인의 고독한 초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화백은 1915년 함경도 함흥에서 상당히 알려진 신흥 은행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동향인 이중섭씨의 2년 후배로써 같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친했다고 한다. 그는 미술학도로 전도유망했으나 전위적인 그림을 그리며 ‘선전(鮮展)’출품에 무관심했다.

해방이 되자 그는 고향인 함흥에 정착하여 함흥미술연구소를 내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또한 당시 함남미술동맹 위원장직을 8개월동안 맡았는데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남에서 크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와 속초의 인연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작한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1.4후퇴에 함흥주민도 대거 월남함에 따라, 그도 피난 대열에 끼었고 월남한 엄춘절씨와 결혼하였다. 이때 미군부대에서 초상화도 그리고 속초에서 미술교사 노릇을 하며 여러 생활방도를 찾았으나 점차 적응력을 잃어가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의 경력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힘겹게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가난한 가운데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약 6백여점의 작품을 남겼지만 살아 생전에는 정식으로 작품을 팔거나 선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언을 통해 그의 작품을 모두 불태우라고 하였으나 그의 사후 아들에 의해 화단의 재조명을 받게 된다.

나. 1960년대

60년대 예술 활동은 주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학, 미술, 음악 등이 그러한데 이 시기엔 아마추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1963년 '예총속초지부'가 구성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당시 사진 작가였던 최구현을 대표로 한 이 단체는 60년대 속초 예술계를 이끌어간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1989년 정식 예총속초지부가 탄생할 때까지 여섯명의 대표가 연이어 맡아 가며 속초 예술계의 모체로 활약했다. 이들은 문학, 미술, 사진 등의 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음악분과는 매달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고 가끔 합창 대회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미술분과는 연 1회 회원전과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분과도 촬영대회 전시행사 등을 꾸준히 개최하였다. 당시는 회원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이런 행사의 참여자가 곧 회원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엔 이런 행사가 주로 다방 등에서 개최되었는데 가야 다방이 많이 이용되었다.

1963년 5월 속초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시청 광장에서 5·16혁명 2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속초에서 거행되는 제3회 시·군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음악, 무용, 연극 등의 행사로 이루어졌다. 1965년 3월에는 속초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최구현, 이순, 김용갑 등을 중심으로 사진협회 속초지부가 결성되고 영랑호에서 42명이 참가하여 사진촬영 대회를 개최하였다. 60년대에 열린 문화 예술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설악제이다. 1966년에 열린 제1회 설악제는 등산경기 대회에 268명이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진 공모전에 29명, 동시 백일장에 56명, 취주악 경연대회에 2팀, 사진 촬영대회에 40명, 초중고 미술 실기대회에 200명 등 모두 600여명이 참가하여 처음으로 종합문화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설악제는 설악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다. 1970년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속초의 문화 예술 활동은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0년대 말 창립된 '설악문우회'에 의해 문학 활동이 본격화되고, 미술 연구 분야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 '설악문우회'에 의해 『갈피』라는

동인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잡지는 지역문화잡지로서는 드물게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가 1974년 결성되어 인준을 받았다. 이로써 개인 혹은 동아리 위주의 활동에서 보다 체계화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엔 ‘청년문화연구회’라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가 구성되어 창작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단체는 1976년 봄에 이상필(李相弼)을 대표로 하여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특히 연극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훗날 연극협회 구성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약 5년간 존속되는데 전성기엔 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지 형식인 『터』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으며 미술전, 연극공연, 종합예술제, 무용 및 민속공연, 시민대동제 등을 개최해 이 시기 예술을 주도하였다. 이에 고무된 기존 예술가들의 활동이 조직화되어 미술협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5년에는 제1회 속초시 문화상이 제정되어 시상식이 있었다. 강원일보사 창간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시상식에서 사회공익 체육부문 최종록, 문화예술부문 윤홍렬, 교육부문 김형기, 봉사부문 정창도, 근로부문 김부울이 수상하였다.

라. 1980년대

80년대는 문화활동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향토문화인들이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시집 등 작품집을 대거 발간했고, 문학 대중화를 위해 시낭송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술과 연극, 연예협회가 잇달아 지부로서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서 예술활동의 본격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미술협회와 연극협회는 주기적으로 전시회와 연극 공연을 열면서 속초지역의 창작 분위기 형성에 힘썼으며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 예술인들이 대거 정착함으로써 예술활동이 두드러진다. 음악 부문도 함흥범이 이끄는 ‘흰 봄’이라는 합창단이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1990년도에 시립합창단을 구성하는 모체가 되었다.

한편 외부의 예술가들이 속초에 들어와 각종 예술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는데 해변 시인학교를 비롯한 희곡작가 세미나, 사진 워크숍 등이 동해안과 설악산에서 열렸고, 예음사가 설악산에서 정기적인 음악공연을 펼쳤으며 김근희 무용단이 산상 무용을 펼치는

등 외지 고급 예술이 속초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약칭:속초예총)가 1989년 4월 7일 중앙 인준으로 설립되면서 속초의 예술문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협회는 문인, 미술, 연극, 연예 4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속초예총은 이후 90년대의 다양한 예술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음악, 국악, 사진 협회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그 규모를 넓혀갔다.

마. 199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예술활동이 전개되었다. 각종 동아리나 단체가 결성되어 정기적인 발표를 하는가 하면 기존에 결성되어 움직이던 단체들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여 회원을 늘리면서 결과물을 축적해 갔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대회나 공연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제1회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90년에 속초종합예술제, 학생사생대회, 학생백일장이 개최되었고, 1991년에는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속초시립합창단 창립 연주회가 있었다. 1993년에는 아동연극제, 속초예술인의 밤, 설악청소년 콩크르가 시작되었고, 1995년에 들어서 주부백일장, 국제 아동 미술전, 향토미술 작가전 등이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전국서예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져 속초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행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횟수를 더해가며 내실을 더해가고 있다.

아울러 90년대는 80년대보다 초청 공연이나 해외교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되며 속초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속초시 문화회관 개관기념 제25회 설악제 경축 제1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 4개 협회가 연합하여 속초시 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1999년 10회 행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속초예총 8개 협회가 연계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행사 내용도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국악, 무용, 연

예예술인 등 다양하여 종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시기에 속초민예총도 설립되었다. 민예총의 설립 정신에 동의한 지역 예술인들이 1995년 1월24일 엄상빈 사진가를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하며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속초지부가 만들어졌고 2달 후인 3월 춘천지부와 더불어 민예총 강원지회가 만들어졌다. 속초지부는 현재 문학, 미술, 사진, 공예, 풍물, 민족극 등 6개의 위원회가 있다. 주요사업은 봄에 실시하는 '예술축전'과 여름의 '통일문화제', 가을의 '민족예술제'이다. 이 중 통일문화제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문화제로 속초의 특징을 살린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바.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말부터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며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졌다. 90년대가 예술가들이 조직적으로 협회를 만들며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면, 이 시기는 90년대 탄생한 예술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활동하며 유기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나 극단 굴령쇠는 각각 국악과 연극의 대표적인 단체가 되어 속초를 넘어선 강원도 대표 단체가 되었다.

2000년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인식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시도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각 단체가 보유한 문화콘텐츠로 문화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문화예술이벤트가 많이 탄생한 것도 이 시기이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재생 및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펼쳤다. 대한민국음대향연과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설악의 작은콘서트, 속초로데오거리콘서트 등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역문화 예술공연계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속초시립풍물단이 탄생하여 지역의 문화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각종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설악시낭송회 풀니음과 속초윈드오케스트라, 프라임오케스트라 등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스토리텔링 속초

1. 소아팔경과 속초팔경
2. 이야기로 만나는 속초



여섯 번째 이야기

스토리텔링 속초

1. 소야팔경과 속초8경

가. 팔경이란?

팔경(八景)이란 한 지역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이 팔경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을 본 따 붙여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중국 명승지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 양자강 중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합쳐지는 근처의 아름다운 경치 8곳을 그린 '소상팔경도'라는 회화에서 팔경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명승지를 여덟 개로 한정하는 것은 팔(八)이 중국에서는 땅(地)을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주역의 팔괘(八卦)와도 연관되며 춘하추동의 네 계절에 명승지를 음양(陰陽)으로 해서 둘씩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소상팔경은 우리의 고전이나 문학을 읽어나가다 보면 무수히 만나게 된다. 또한 그림의 주제로 많이 그려졌다. 조선 초기의 명인 안견과 이징, 김명국, 정선과 심사정 등의 명인들이 즐겨 그린 보편화된 장르였다. 그럼 팔경의 원조 격인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알아보자. 이는 단순히 소상팔경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모르면 고전문학과 그림에 대해서도 참맛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과 시로 알려진 소상팔경은 다음과 같다.

제1경 산시청람(山市靑嵐) : 날이 개어 맑은 기운이 감도는 산골 마을의 풍경이다. 산(山)은 성(聖)이고 마을은 속(俗)이니 성 속에 깃든 속이라 성속의 조화다.

제2경 연사모종(煙寺暮鐘) : 안개 낀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절이란 구도자(求道者)가 심신을 닦는 도량이라 안개 낀 삶의 길 위에서 저녁 종소리를 길안내로 목표를 찾아가는 마음이다.

제3경 소상야우(瀟湘夜雨) : 소상 강에 밤비 내리는 풍경. 삶의 도중에서 만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시련과 다 풀어내지 못한 한(恨)의 정서를 의미한다.

제4경 원포귀범(遠浦歸帆) : 멀리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 배. 입신양명을 위해 세상에 나가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를 의미한다.

제5경 평사낙안(平沙落雁) : 강변 모래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기러기 역시 자유롭게 하늘만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래사장에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아야 하니 이상과 현실의 갈등 또는 조화를 의미한다.

제6경 동정추월(洞庭秋月) : 동정호에 뜬 가을 달. 동정 호반에 뜬 둥근 보름달. 어느 정도 삶의 성취를 이룬 후에 맞이하는 한가로운 한 때를 뜻한다.

제7경 어촌석조(漁村夕照) : 저녁노을에 물든 어촌 풍경. 한가로운 어촌에 내리는 저녁 노을. 어촌은 한가로운 생활이고 저녁노을은 인생의 만년이니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관조(觀照)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를 뜻한다.

제8경 강천모설(江天暮雪) : 눈 내리는 저녁 강변의 풍경. 겨울 강위로 내리는 저녁 눈. 나이 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겨울 강위에 배를 띄워놓고 내리는 눈을 보며 즐기는 경지를 말한다.

이 같은 소상팔경은 단순한 경치의 아름다움보다 그 상징을 빌려 높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관념산수(觀念山水)로 다듬어졌으며 시대에 따라 미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자연경관을 팔경으로 평가, 지정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구전되거나 시문이 뛰어난 학자가 붙여 확산되는 등 민간사회에서 시작됐다. 강원도에 유독 팔경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강원도 땅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속초 역시 이 같은 팔경이 전해져 내려온다. 일제시대,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인 '면세일 반'에 보면 '소야팔경'이 적혀 있어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살이의 모습을 그려 놓고 있다.



나. 소야팔경

1) 청호마경(靑湖磨鏡)

서쪽 가까이 태백산계의 주봉우리 설악산 꼭대기를 갈아 흡사 화병과 같다. 청초 호수면에 웅대한 모습이 거꾸로 비추고 북쪽은 아득히 후지산의 한봉우리를 축소하여 위치시켰다. 운봉산을 바라보며 동쪽은 넓게 동해 물줄기가 만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따라 백사장 일대는 원산 양양선 2등 도로를 관통하고 남쪽은 부월리를 접해 완곡없이 정원형 한쪽 끝에 동북쪽 해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약간 가늘고 짧다. 호수면은 사시 푸르고 해안의 갈매기와 백로가 날아오르고 수영하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풀 베는 아이와 노 젓는 아이가 피리 소리와 어부가를 서로 주고받고 달 밝은 가을의 저녁 꽃은 웃고 봄 새벽의 조망은 절경을 이룬다. 호수의 북쪽면 약 7, 8리 되는 호숫가에 우뚝 솟은 것을 용암이라고 부른다. 시인과 묵객들은 항상 올라와 술을 마시며 가무하고 전 한국시대의 군수 남궁역씨 석존생일에 낙화를 즐겼다. 호수의 경치는 또한 칭찬할만하고 경치 중에 마경은 설경에서 아름다움을 취하고 겨울의 결빙기가 오면 층층히 맑고 깨끗해서 마치 대지에 하나의 큰 거울면을 깎 것처럼 장관이 된다.



2) 속초귀범(束草歸帆)

남쪽에 넓고 평평한 사빈 호수 가까이에 좁고 길게 돌출해 굽어진 포구를 따라 하나의 마을을 이룸하여 속초리라고 부른다. 전방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센 물결을 헤치고 태양이 동해를 비출 때 돛을 단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소상8경의 원포귀범에 뒤지지 않는 장관이다.

3) 주교야화(舟橋夜火)

들판의 동쪽 청초호를 따라 있는 마을이 지금의 부월리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본래 주교라고 부른다. 이곳의 호수 주변에 나루터가 있고 현재 마을이 호수에 가깝게 접함으로써 초여름의 4월과 늦가을의 9월경은 물고기와 게를 잡는 것이 한창이어서 강촌의 밤 불빛이 호수 주변에 비추어 거대한 불과 함께 불야성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4) 온정조하(溫井朝霞)

부월리는 내리 외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 내리의 남쪽 청대산 언덕 산기슭에 민가가 여

러 채 있고 산기슭 오른쪽 산간에 계곡에서부터 끊임없이 용출하는 온천이 있는데 겨울철 수온은 따뜻하고 하절기에는 보통의 물과 큰 차이 없다. 그 외 동절기에 흐르는 온천은 근처에 아침에 증기가 올라와 우물 부근에는 아침놀이 두텁게 낀듯하며 연기가 속초리까지 약 반리 공중에서 낙하여 하나의 기이한 광경을 나타내다 증천에 이르러 점점 없어져 자취가 사라진다.

5) 논산조하(論山朝霞)

소야일대 평탄부근 평지에 마을이 위치하고 홀로 논산리는 약간 높은 구릉지에 있어 동쪽으로 향해 아침해를 빨리 맞이하여 그 장엄한 경치가 팔경 중 으뜸이다.

6) 청대화병(靑垓畵屏)

동군의 진산인 설악산의 한줄기가 구부러져서 동쪽을 지나 달마봉이 되고 이것을 두 줄기로 나누어 동서 중앙을 관통해 우뚝 솟아 청대산이 된다. 제일 높은 곳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어 향해의 목표가 되고 산봉우리들을 돌아 사계절을 감상하며 늦가을 서리 앉은 잎이 2월의 꽃보다도 붉어질 때 수놓은 병풍을 장식한 미관은 신선의 모습을 자아낸다.

7) 노동명월(蘆洞明月)

서쪽 능의 울산암 구름에 우뚝 솟아 동해의 기운이 장엄함을 나타내고 남쪽의 주봉 청대산을 화병과 같이 돌렸고 동해를 한 눈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노동을 현재 노리라고 칭한다. 가을에 달을 보면 고요한 달빛이 동해에서 나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천에 걸리는 것과 달이 지는 산그늘의 경치가 노동의 땅과 같게 조화를 이룬다. 고대 시에 ‘증천의 월색이 좋아 노동명월을 잠시본다’하니 팔경에 가히 더할만하다.

8) 이동백설(梨洞白雪)

들판의 서쪽 끝에 작은 마을이 있어 현재는 노리에 속한다. 교외 들판의 봄경치를 접하면 마을 전부가 백화의 세계가 되고, 불시 흰눈이 비약하는 모습이다. ‘배꽃이 흰눈같

다'고 고시에서도 읊었으나 애석하게도 마을주민이 배나무를 베어서 그 잔재만 남았다.

다. 현재의 속초팔경

1) 영금정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히면서 신묘(神妙)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 일대는 비선대(秘仙臺)라는 곳인데 일제시대 속초항(束草港)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築港)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



영금정 등대전망대

(岩盤)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金剛山) 자락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준다.

2)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넓이 36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新羅) 화랑인 영랑(永郎)이 동료 술랑(述浪), 안상(安祥), 남석(南石)등과 금강산(金剛山) 수련 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붉게 든 저녁노을 그리고 호수에



영랑호 범바위

웅장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한다. 그 후부터 이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3) 청대리 청대산

청대산은 해발(海拔)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병(靑垓畫屏)』이라 하였다 또한 청대산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대청봉(大靑峰), 달마봉(達磨峰),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천연(天然) 전망대이다.



청대산

4) 청초호

과거에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하였던 청초호는 둘레가 5km로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만경(靑湖磨鏡)이라 불렀다. 99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 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변 야경(夜景)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일출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청초호

5) 속초해수욕장 조도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조도는 아름다운 백사장(白沙場)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야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로가 각광(脚光) 받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조도

6) 대포 외옹치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 잡은 대포(大浦)는 6·25사변을 전후(前後)로 발행된 지도에 동해안(東海岸) 표기로는 부산, 포항, 묵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넙치, 방어 등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외옹치



대포 외옹치

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景觀)이 아름답다.

7)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조선시대(朝鮮時代)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선생이 함경도(咸鏡道) 덕원에서 거제도(巨濟道)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렀다고 한다. 주변에 탁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공원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이곳만이 연출할 수 있는 비경(秘境)이다.



해맞이 공원

8) 상도문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發源)해서 흐르는 쌍천변(雙川邊)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高宗) 9년(1872)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



학무정

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라고 쓰여 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주변 전통 한옥(韓屋)마을이 풍취(風趣)를 더해 준다.



2. 이야기로 만나는 속초문화

가. 속초에는 두 개의 비선대가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속초.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데다 청초호와 영랑호라는 자연석호까지 존재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이 중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자연산 회로 사랑을 받는 곳이 동명동의 영금정(靈琴亭)이다. 영금정에 새로 만든 전망대에 올라 바다를 보고 있으면 동해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 하얀 포말을 그리며 부서지는 파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바다를 만나면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된다. 그 옛날 이곳의 바위에 앉은 선조들은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자연을 벗 삼았다고 한다.

영금정은 동명동의 등대 동쪽에 위치한 넓은 암반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곳에 정자가 건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곳을 영금정이라 부르는 연유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일제시대 말기에 속초항의 개발로 파괴된 석산 정상에 괴석들의 형상이 정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흡사 석산의 정상에서 거문고를 타는 것 같다고 하여 영금정

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설을 통해 이 일대가 바다 위의 울산바위처럼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돌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금정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는 없고 일제시대인 1926년에 발간된 <면세일반>에 처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이곳 일대를 비선대(秘仙臺)라고 불렀다.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인데 그만큼 이 일대의 경치가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처럼 옛 기록을 따르자면 원래 이름인 비선대라고 다시 불러야 하지만 영금정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곳으로 인식되어 고치기는 힘들다. 또한 뜻이 다르긴 하지만 설악산의 비선대가 많이 알려졌기에 지금은 영금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

영금정이라는 이름이 일제시대에 기록되긴 했지만, 그 풍경을 지금으로서는 가늠만 할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일제시대에 처음 기록한 영금정은 아쉽게도 일제시대에 망가져버렸다. 속초항 개발이라는 근대의 개발 때문에 옛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관동읍지(關東邑誌)>의 양양 누대조를 보면 “在府北五十里變成湖東有石峰拔可觀舊有亭今廢”이라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 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선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된 글은 없다. 다만, 김정우씨의 저서인 <내 고향(故鄕)>(강원일보사, 1997)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솔산이란 곳을 말하자면 속초라는 지명을 만들게끔한 아름다웠던 바다위에 떠있던 작은 섬! 마치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줄라맨 모양의 작은 바위섬! 바위 위에 노송(老松)이 두세 사람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큰 소나무가 하늘 높이 우산 모양의 나뭇가지를 등

굴게 사방으로 뻗어 있다.(중략)

섬이라고는 하지만 섬과 해안선 사이가 넓고 넓은 돌반석이 물밑에 깔렸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마르면 발목정도 적시면 육지에서 이 섬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던 솔섬이 오늘에 이르러 육지가 돼 버렸다.(중략)

송림사이로는 울퉁불퉁 묘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었고, 공작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천년 노송들이 땅바닥을 굽어보며 묘한 몸매로 쭉! 쭉! 나뭇가지를 늘어뜨렸었다.“ <김정우, 《내 고향(故郷)》, 강원일보사, 1997. 55쪽.>

바다 위에서 볼 때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즐라맨 모양을 하였다는 솔섬으로 인해 속초의 지명유래가 나오기도 한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곳은 일제시대 때 영금정 돌산을 파괴하여 돌과 흙으로 바다를 메웠기에 육지가 되어 버렸다. 그런 만큼 이곳은 일제시대라는 근대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속초시는 ‘솔섬’이라고 불린 이곳에 정자형 전망대를 설치하여 속초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나. 영랑, 당신은 누구신가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신라 제32대 효소왕 시대. 화랑 영랑(永郎)은 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과 등과 함께 금강산으로 수련을 떠난다. 신라 당시 전국토의 관심을 품기했던 이들은 어디를 가나 늘 함께 하여 신라의 4선(仙)이라고 불렸다. 당대에 끼친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던 모양이다. 특히, 영랑은 우리민족 고유의 선맥(仙脈)을 이어받은 인물로써 무사의 혼이자 정신의 중심이라고 평가받았을 정도다. 국보 제147호인 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의 서석(書石)의 명문에는 ‘술년6월2일영랑성업(戊年六月二日永郎成業)’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영랑이 화랑으로서의 수련을 마친 것을 기념한 각문(刻文)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또한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하시동

리에 있는 ‘영랑명(永郎銘) 석구(石臼)’에는 신라의 선인으로 나오며, 금강산에는 그의 이름을 딴 ‘영랑재(永郎峴)’가 있었다고 전한다.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금강산으로 수련을 갔으니, 이들 4선(仙)이 노닐던 금강산과 관동팔경 동해안 일대에는 4선(仙)의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중 우리 지역의 보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영랑호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영랑호(永郎湖)는 신라의 화랑 영랑(永郎)이 머물던 호수라 하여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한다.

4선(仙)이 금강산(金剛山)에서 수련을 하고 내려오면서,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에서 3일 동안 놀았다. 삼일포라는 지명 역시 4선(仙)이 3일간 놀던 곳이어서 나온 지명이다. 이 삼일포(三日浦)에는 사선정(四仙亭)이 있으며, 삼일포 남쪽 산봉의 돌벽에는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는 6글자의 단서(丹書)가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해석하면 ‘영랑(永郎) 무리의 남석행’이 된다. 남석(南石)은 바로 남랑(南郎)으로서 영랑의 동료인 화랑이었다.

아무튼 삼일포에서 이들 4선(仙)은 헤어지게 된다. 신라의 서울인 금성(지금의 경주)에서 무술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참가해야 하는데 각각 헤어져 따로따로 출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영랑(永郎)은 가는 도중에 한 호수를 발견하였다. 호수의 풍경에 도취된 영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술대회조차 잊어버렸으니, 이 호수가 바로 영랑호(永郎湖)였다.

이 같은 영랑의 이야기는 후손에게도 회자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영랑호(永郎湖)를 선인(仙人) 영랑(永郎)이 놀며 구경하던 암석이 기묘묘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구슬을 감추어둔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 호수의 좁다란 입구를 통하여 동해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 위에 영랑교(永郎橋)가 놓여져, 강릉과 고성을 연결하는 국도가 통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려말 문인 근재(謹齋) 안축(安軸)은 ‘영랑호에 배 띄우고(永郎浦泛舟)’라는 시(詩)의 말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古仙若可作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이로 보아 영랑호(永郎湖)라는 이름은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영랑호는 속초에만 있는 고유지명은 아니었다. 화랑 영랑이 풍류를 즐기며 전국토를 다녔기에 영랑호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은 금강산과 고성이다. 이 지역 모두 화랑이 금강산의 수련을 마치고 내려온 곳이고, 속초 영랑호 인근이라는 점에서 옛사람들은 영랑이 머물다 다녀간 곳을 모두 영랑호라고 이름 붙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강산에 영랑호가 있다는 사실은 1984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금강산의 력사와 문화>에 나온다. “영랑호와 현종암 : 영랑호를 찾으려면 적벽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약 4km 가야 한다. 그곳에 가면 북동쪽만 약간 트여 있을 뿐 빙 둘러 나직한 야산들이 있는 한복판에 호수 하나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영랑호인데 옛날 영랑이라고 하는 신선이 놀고 간 곳이라 하여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금강산은 신라 4선(仙)이 수련한 곳으로 영랑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설이 깃든 지명이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4선(仙)을 뜻하는 사선봉(四仙峰)이다. 또한 무선대(舞仙臺)에서 4선(仙)이 취무(醉舞)했다는 데서 유래하여 사선무(四仙舞)라는 춤이 유래되었다. 사선무(四仙舞)는 신라시대에 있던 궁중 무용의 하나로, 향악정재(鄉樂正才)에 속한다. 이 사선무(四仙舞)는 고려로 이어지면서 팔관회(八關會)에서 사선악부(四仙樂部)와 용(龍)·봉(鳳)·상(象)·마(馬)·차선(車船)과 함께 선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순조 29년(1829) 6월에 ‘4선(仙)이 와서 노닐 만큼 태평성대’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사선무(四仙舞)를 추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영랑호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명으로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그리는 사생여행을 떠났고 약 100점의 그림을 남겼다. 이 그림을 보면 강릉을 지나 양양에서 낙산사와 관음굴을 그리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토왕폭, 계조굴(울산바위), 와선대, 비선대 등을 그렸다. 그리고 속초를 지나 간성(고성군 토성면)의 청간정(현재와는 위치가 다르다), 조금 더 북상하여 감호와 영랑호를 그렸다고 한다. 감호는 현재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구선봉(九仙峰) 아래 위치해 있다. 이 그

림 속의 영랑호는 “고성 남쪽 5리 지점에 있는 호수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였다”고 묘사되어 있다.

화랑 영랑이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이름을 빌어 신령스러운 효험을 드러내는 지명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속초의 영랑호는 화랑 영랑이 중요한 무술시합을 잇을 정도로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화랑 영랑의 숨결을 간직한 곳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 원조 실향민, 울산바위에 얽힌 오해와 진실

울산바위는 외설악의 북쪽에 위치한 바위산이다. 약 650미터의 높이를 가졌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발붙일 곳이 없는 화강암 덩어리다. 울산바위의 태생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수직절리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수직절리란 잘라진 바위틈이 직선으로 드러워진 것을 말한다.

울산바위의 태생에 관한 과학적 해명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오랜 시간 설악의 병풍으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네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울산바위 전설은 금강산 일만이천봉과 관련이 있는 전설이다. 울산 태생의 이 장엄한 바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바위들을 모아 일만이천봉을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에 자기의 자만심으로 잠시 설악산에 쉬게 되고 그 사이에 이벤트가 끝나면서 설악산에 머물렀다는 전설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구비율 실향민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속초의 운명이 태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향 울산에 가지 못하고 설악산에 남은 울산바위의 슬픈 사연 말이다. 그 울산바위가 지금은 설악의 비경으로 꼽히면서 속초의 상징적 자연유산이 되었다. 마치, 실향민의 문화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이 속초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울산바위 이야기는 그 이름의 연원을 따지다보면 더욱 재미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울산’이라는 지명에 얽힌 전설은 최근에 만든 이야기일 뿐이고 원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울산바위는 이산(籬山) 혹은 천후산(天吼

山), 울암(蔚岩)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산(籬山) 부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곧 대령(大嶺)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울산(蔚山)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1530년 편찬]

천후산(天吼山): 군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고 전해온다.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이 산에 성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성군 읍지, 1633년]

위의 옛 문헌을 정리하면 울산바위의 원래 이름은 천후산(天吼山)이다. 산에 바위구멍이 많아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이산(籬山)이라고 하였다. 리(籬)는 울타리를 뜻하는 한자임을 감안하면 ‘울’이 울타리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속세에서는 그래서 울암(蔚岩)이라 하기도 하였다.

강릉대 장정룡 교수는 『속초문화』 24호(속초문화원 발행)에서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과 전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측을 내놓는다.

‘울산’이라는 고유어의 명칭이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는 산’을 줄여 ‘울산’으로 지칭한 것이 후대에 ‘천후산’이라는 한자어로 정착된 것이다. 우리말로 ‘우는 산’이라 하다가 ‘울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울산’이 아니라 형태상 ‘울-相’이 아닐까 의심된다. 또한 ‘籬山’은 ‘籬相’으로 즉 ‘울타리상’이 줄어들어서 발음상 ‘울상’으로 불리다가 ‘울산’으로 발음전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왜냐하면 ‘울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위’를 접합한 ‘바위산’임을 관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울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산이 아닌 바위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울산’은 ‘울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미상 두 가지를 겸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리의 음성적 측면에서 ‘우는 상’의 ‘울상’이고, 산이 지닌 형태적 측면에서 ‘울타

리상'을 축약한 '울상'에서 파생된 용어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헌에서 정착되면서 '천후산' 또는 '이산'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여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간에서는 '울산바위'로 지속화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울상'인 것을 한자로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울산'의 본음인 '울상'이 듣기에 그리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음에 따라 굳이 산도 아닌 이 바위를 '울산'이라 불렀을 것으로도 의심된다.

'울산'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나오는 도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산의 특성과 형태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자어의 표기가 있었지만 민초들의 이름은 그대로 살아남아 울산바위가 되었고, 자연에 인격성을 부여하여 창작된 전설이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산바위가 등장하는 속초 지명설화를 소개한다. 이 설화 역시 민초들의 입에서 전승되어 온 것을 정리한 것이지만, 그럴듯하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쪼개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쪼개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묶음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라. 오랜 세월의 흔적에서 깨어난 속초리 성지

2005년 7월 재해지역위험지구로 지정된 동명동 일대에서 유물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다. 석축 공사를 하는 중 석렬이 발견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입회하에 긴급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속초리 성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에 발견된 곳은 기단석축과 그 상위로 판축을 실시한 토성의 성벽구간이었다. 그 옛날 토성이 축조된 자연구릉에서 남쪽으로 분지된 가지능선에 축조된 성벽구간인 것이다. 아쉽게도 주변 일대의 지형이 완전히 변형되어 토성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벽 끝이 확인되는 양상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성벽은 돌출된 자연구릉을 이용한 치(雉)내지는 옹성의 옹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속초리 성지에 대해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 옛날 성터가 우리 속초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동명동 일대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지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장안마을(일명 장골)이라 부른다. 장안이란 한나라의 수도를 지칭하거나 큰 고을을 의미하는데, 성 안의 마을을 그렇게 말하고는 했다.

속초시 성지에 관한 역사 문헌은 우리나라에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에 있는 사유지로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라고만 나와 있는 실정이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 이 지역 원주민들이 전하는 증언 및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기와파편들과 명문(銘文)기와, 초석, 우물터, 석렬(石列) 등이 이곳이 성지(城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던 중 성벽의 축조 흔적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 번 속초리 성지가 지역 향토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은 언제 축조되었을까. 이와 직접적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내벽과 외벽을 축조하기 위해 이용된 기와와 기존의 자문결과를 추정할 때 그 상한은 12세기를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명문기와와의 경우 속초리 성지의 축성 또는 중수연대로 추정되는 천경3년(天淸三年, 고려 예종 8년으로 1113년에 해당) 기와 등이 발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양양 진전사에서도 같은 연대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본 성지의 축조시점이 12세기 전후라면 동해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성들이 그러하듯이 여진족과 왜구 등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문헌상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고려 현종 2년(1011년)부터 숙종 2년(1097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20여 차례나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다. 왜구의 침입도 만만치 않았다. 왜구의 침입기록은 무려 471회나 되는데 고려 우왕 9년(1383년)에 왜구가 동산현(구 혈산현, 양양군 현북면 동산리)에 침입한 기록이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출토된 기와를 보면 불에 탄 흔적의 기와도 보인다고 현지인은 전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속초리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성이 축조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불에 타서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 나온 곳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태조6년 정축에...수군 만호수어처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속초포가 양양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 10명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 책에서 말하는 속초포는 현재의 척산온천 근처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속초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명동 일대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성이 축조되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마을을 이루고 함께 살았으리라는 가능성은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문화 정체성도 함께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마. 속초에는 사자가 산다?

속초의 축제나 중요행사에는 북청사자놀음이 꼭 나온다. 공연 말미에 사자 두 마리가 성큼성큼 무대에 등장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며 사자춤에 감탄을 한다. 북청사자놀음의 진귀한 무대에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북청사자놀음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 속초는 북청사자놀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 지역을 본거지로 한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탈놀음이다. 북강원도의 통천탈춤이나 강릉의 관노가면극이 대표적인 탈놀이인데 북청사자놀음은 이름 그대로 사자탈춤 위주로 진행된다. 정월대보름에 마을 주민들이 놀던 민속놀이였는데, 탈춤과 재담이 혼합된 형식으로 지배층의 탐욕과 착취적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라 할 만하다. 이 탈춤의 발원지가 북한의 북청지방이다. 북청군에서도 북청읍 사자계, 가희만 학계, 구 양천면 영락계가 특출났으며, 북청읍사자는 댕벌사자인 죽평리 사자가 유명했다고 한다.

북청사자놀음은 벽사진경의 의미로 초기에는 잡귀신들을 몰아내는 미신적인 외피를 쓰고 시작했으나 예술적 내용으로 점차 다듬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남과 북이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미신승배를 반대하는 문화계몽 놀이로 발전하다 봉건통치에 대한 폭로와 조소 등의 내용으로 변질되며 북한체제를 위한 민속놀이로 바뀌었다고 한다.

남한에서 최초로 북청사자놀음이 연행된 곳이 속초이다. 속초는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민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이고, 실향민 인구밀집도 최다인 곳이다. 그래서 실향민의 도시라고 불리고 실향민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처음 시작된 해는 지난 1957년. 정월대보름날 북청출신 김수석, 김하륜 씨 등이 북청도청을 구성하고 이들에 의해 최초로 공연이 되었다. 걸립굿

형태로 처음 시작한 이 공연은 서울의 북청 출신 실향민들과 함께 연합하여 공연하였는데 민속놀이와 민속극이 접목된 형태로 공연되어 예술성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이 지배체제를 위한 공연으로 변질되어 갔다면, 속초에서 시작한 북청사자놀음은 한국전쟁 이전의 원형들을 보존한 작품으로 북청사자놀음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초시는 지난 2005년부터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속초시립풍물단, 갯마당,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실향민 1세대들이 청호동에서 놀던 그 모습이 오늘에 되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단순히 공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서울의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하고 있는 사자탈과 속초의 북청사자탈은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서울의 사자탈이 친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라면 속초의 사자탈은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진다. 속초의 사자탈이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년대 처음 공연을 하였을 당시의 사진을 복원하여 최대한 원형을 재현하고자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북청사자놀음은 악(樂)·무(舞)·극(劇)이 함께 어울리는 민속공연문화의 백미라고 일컬어진다. 사자놀음을 비롯해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팽가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재미는 사자놀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입사자 만들기 등 다양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사자놀음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놀이꾼이 나와 뉘드리춤, 꼬추춤, 사당 거사춤, 칼춤 등의 볼거리를 보여주는 점도 북청사자놀음의 특징 중 하나이다.

현재 북청사자놀음은 속초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로 성장하면서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실향민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고향의 문화로 달래려 했던 실향민 1세대 의 문화가 속초의 가장 중요한 문화콘텐츠가 된 것이다. 어디 북청사자놀음뿐이랴. 아바이순대나 오징어순대, 냉면같은 먹거리도 속초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 한시 속의 속초

- 영랑호

束草 永郎湖畔 謹齋 安軸 先生 詩碑

속초 영랑호반 근재 안축 선생 시비

永郎浦泛舟(영랑포범주) 영랑호에 배 띄우고
平湖鏡面澄(평호경면징)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고
滄波凝不流(창파응불류)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범범수경구) 갈매기도 배따라 등실 떠 날아오네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마음 가득 맑은 흥취 일어나기에
泝洄入深幽(소회입심유) 물결 거슬러 깊은 골로 들어서네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붉은 벼랑이 푸른 바위를 안고 있어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아름다운 골이 고운 섬을 품고 있네
循山迫松下(순산박송하)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 배를 대니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울창한 숲 그늘이 가을인 양 서늘하네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연잎은 씻은 듯 깨끗하고
蓴絲滑且柔(순사활차유) 순채 즐기는 매끄럽고도 부드럽네
向晚欲廻棹(향만욕회도) 해 저물어 뱃머리 돌리려 하니
風煙千古愁(풍연천고수) 흐릿한 기운 오랜 시름 자아내네
古仙若可作(고선약가작) 그 옛날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어차종지유) 그를 따라 여기서 놀련마는

근재(謹齋) 선생의 영랑호 시문 한수를 더 소개한다.

暮雲半捲山如畫(모운반권산여화) 저문 구름 반쯤 걷히니 산은 그림같고
 秋雨新晴水自波(추우신청수자파) 가을비 새로 개니 물결이 절로 이네
 此地重來難可必(차지중래난가필) 이곳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更聞船上一聲歌(경문선상일성가) 배위에서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허균(許筠, 1569~1618)

유증무산장옥랑

(留贈巫山張玉娘 : 무산의 장옥랑과 작별하며짓다)

天吼山前草正芳(천후산전초정방)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꽃다운데
 永郎湖畔落花香(영랑호반락화향) 영랑호 호숫가에 지는 꽃 향기롭네
 畫舫載得春歸去(화강재득춘귀거) 그림배에 봄 가득 싣고서 돌아가니
 吹徹鸞簫向帝鄉(취철란소향제향) 옥통소 드높아 제향을 향하는구나

- 청초호

허균의 시 “쌍성호”

병해평호활(並海平湖闊) 바다 곁 평평히 호수는 트였고
 연류객도경(沿流客棹輕) 물을 따라가니 길손의 노 가볍네
 연응모산자(煙凝暮山紫) 안개 서리고 저무는 산은 자주빛
 상락석파청(霜落夕波清) 서리 내려 저녁 물결 맑기도 하구나
 사로통은한(槎路通銀漢) 뗏목길은 은하로 통해
 선거근옥경(仙居近玉京) 선경에 거하니 옥경에 가깝구나
 취생강왕모(吹笙降王母) 생황을 불며 서왕모 내려오는데
 하허동쌍성(何許董雙成) 허, 동쌍성은 어디인가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펴낸이 / 박무웅

펴낸곳 / 속초문화원

편집 및 찍은 곳 / C&C 디자인

인쇄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주소 /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전화 / 033) 632-1231, 639-2439

전송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2439@sokcho.org

※ 이 책은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TEL. 033. 632-1231, 639-2439 FAX. 033. 632-1241
www.sokcho-culture.com